



2020.12
가을·겨울
통합호
제26호

날은 **홍범도장군**

www.hongbumdo.com | 발행인 우원식 | 편집인 홍순계 | 창간 2014년 8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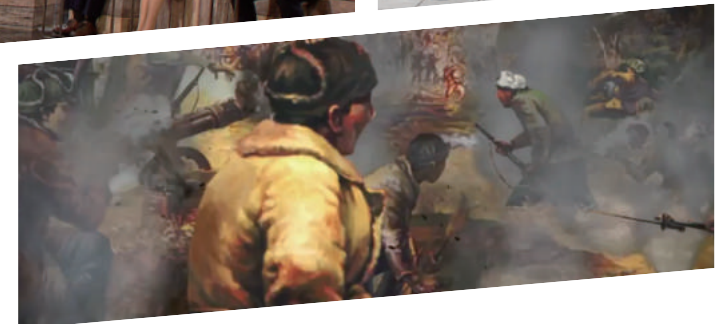
“대한영웅 대한으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Gen. HongBumDo Memorial Society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TEL : 02)734-8851-2 FAX: 02)722-0251 www.hongbumdo.org





2020.12 가을·겨울 통합호

2	추모식	순국 77주기 추모식 이모저모
3		기념사 우원식 이사장
4		청산리 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 축하 우원식 이사장
6		KBS다큐 '민족영웅 홍범도'
8	학술회의	봉오동·청산리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9		홍범도와 임시정부의 독립군 통합운동 이숙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10		봉오동 전투를 이해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 이상훈 육군사관학교 교수
11		청산리전투 전후 독립군단체들의 동향 오세호 독립기념관 연구원
12		학술회의에 대한 논평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14	홍범도이야기	청산리전투와 홍범도 장군 오세호 독립기념관 연구원
18		독립영웅 기념관 해외편(2) 중국 김도형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20		독립영웅 기념관 국내편(3) 유관순 기념관 정이숙 카피라이터
24		독립운동 명가를 찾아서(2) 최병준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29		연재 (4) 항일무장투쟁의 영웅 홍범도장군 공희정 작가
30		홍범도장군 네이밍 공모전 수상작품
32		Book Concert 육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황원석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34		소설'나는 홍범도'감상문 조성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35	회원소식	회원투고 - 어르신 유감 김용환 한남대 명예교수
36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회비 입금현황, 임원명단

홍범도 장군 순국 77주기 추모식

여천 홍범도 장군 순국 77주기 추모식이 서울현충원 충열재단에서 10월 23일 13시에 열렸습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로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군의 위패가 모셔진 무후선열재단 헌화, 우원식 이사장의 기념사, 박병석 국회의장의 추모사, 이동순 시인의 추모 헌시 낭송, 독립군가 제창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추모사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올해는 홍범도 장군이 순국하신지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장군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올해는 장군의 유해를 모셔 놓고 추모식을 열었을 텐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당시 유해봉환을 카자흐스탄 정부에 요청하셨고, 올해 유해봉환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후손이신 우원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크셨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장군 유해를 고국에 모실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올해는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쾌거였습니다.
절대적인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정예부대와 싸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민족의 기개와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강제이주 고려인이 되셨습니다. 끝내 낯설고 물선 이국땅에서 최후를 마감하셨습니다.

장군의 탁월한 업적에 비해 당신을 기리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독립전쟁 100주년인 올해를 기점으로 항일무장투쟁 역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의 삶을 발굴하고 기려야 합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발굴하고 기억하고 예우해야 합니다. 국회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삶을 재평가하고 업적을 기리는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님과 임원진,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홍범도 장군의 정신, 그의 삶,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국땅에 영면하신 홍범도 장군께 삼가 추모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모식 기념사



우원식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올해는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봉오동, 청산리에서 대첩을 일구어낸 지 100년, 홍범도 장군이 순국하신 지 일흔 일곱 번째 되는 해입니다.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치시고 끝내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신 장군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름 없는 독립군에게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홍범도 장군 위패가 모셔진 국립현충원에서 추모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곳 ‘무후선열재단’은 유관순 열사, 이상설, 이준, 이위종 열사, 그리고 홍범도 장군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바쳤지만 유해를 찾지 못하고 후손마저 없는 애국선열들의 위패를 봉안한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후손입니다. 여기 계신 선열들이 외롭지 않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강점당했을 때 독립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목숨을 걸고 총칼 들고 싸운 역사가 있느냐로 평가합니다.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를 강조하는 것도 위대한 투쟁의 역사를 국민들에게 알려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레지스탕스를 훨씬 뛰어넘는 투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민초들은 일본 정규군과 맞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고, 국내 진공을 위해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치열했던 독립전쟁의 역사를 앞으로 널리 널리 알려져야만 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기념사업회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전쟁의 승리를 이끈 전설적인 영웅이었지만 자신을 낮추어 다른 독립군 부대와의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강력한 무장력을 갖추도록 했으며, 늘 주변의 평범한 이웃과 함께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고아, 머슴, 식객승, 제지공장 노동자, 포수 출신으로 나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오직 애국심으로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홍 장군은 일생을 바쳐 독립운동을 했고, 아무런 기득권 없이 평생을 살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스러져간 많은 독립군과 함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희생했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더불어 가족 전체가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 명가입니다. 얼마 전, 일본군의 고문으로 옥사한 부인 단양 이씨와, 독립군으로 활약한 첫째 아들 양순과 둘째 아들 용환의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도 마쳤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국민 속에 제대로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홍범도 장군을 고국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봉환 일정이 연기되기는 했지만, 장군의 높은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의 안장 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무명독립군들을 위한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개의치 않았던 홍범도 장군의 뜨거운 애국정신을 기억하면서 홍범도 장군이 꿈꾸셨던 당당한 조국을 모두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

2020.10.23 이사장

우원식

청산리 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

청산리 대첩 전승 100주년 기념식이 10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용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서욱 국방부 장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등 정부 주요 인사와 김영관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과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다시, 대한민국! 끝내 이기리라'를 주제로 국방부 의장대의 추모 의식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추모 묵념, 영상 상영, 기념사, 축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독립전쟁 청산리대첩 전승100주년 기념식 축사



다시, 대한민국! 끝내 이기리라!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산리 독립전쟁 승전 1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는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영웅들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일제 식민지배로 고통받던 우리 민족에게 강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조국 광복에 대한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수 많은 독립용사들의 애국정신이 가져온 찬란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강점당했을 때 독립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목숨을 걸고 총칼 들고 싸운 역사가 있느냐로 평가합니다.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를 강조하는 것도 위대한 투쟁의 역사를 국민들에게 알려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4

우리에게는 레지스탕스를 훨씬 뛰어넘는 투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민초들은 일본 정규군과 맞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고, 국내 진공을 위해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치열했던 독립전쟁의 역사를 국민께 널리 알려져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목숨을 바친 독립군과 이들을 지원했던 많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한민국 정체성 한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청산리 전쟁은 우리 독립전쟁 사상 가장 빛나는 전과를 올린 승전입니다. 봉오동전투가 독립전쟁의 1차 대승리라면, 청산리대첩은 독립의 열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린 독립전쟁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청산리전투와 봉오동전투는 단순히 개별 전투의 승리가 아닙니다. 3.1운동으로부터 시작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거쳐 진행되어오던 연속된 투쟁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독립전쟁의 승리이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청산리 대첩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오직 일제를 물리쳐야 한다는 연합정신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뿐만 아니라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안무 장군의 대한국민군, 최진동 장군의 군무도독부 등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군사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좌진 장군이 이끈 백운평 전투는 청산리 전쟁에서의 첫 승리로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높여주었고, 다음으로 홍범도 연합부대가 이끈 완루구 전투에서 400여명의 일본군을 격퇴하며 치열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꼬박 6일 동안 크고 작은 전투가 열 차례나 있었지만 독립군은 10전 10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독립을 위해 하나로 모은 마음은 통합된 힘으로 승화되었고, 그 통합된 큰 힘으로 빛나는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에 맞서는 힘은 바로 화합과 통합의 정신이었습니다. 직업도, 성별도, 이념도 구분 없이 광복을 향한 열망 하나로 뭉쳤습니다. 국권 회복과 자주독립의 신념이 최고의 이념이었고, 그것이 바로 애국이었습니다.

100년 전 함께 만들어낸 '연대와 통합의 승리'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정신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일제강점기 일제와 싸우는 일에 자신을 낮춰 단결하여 큰 승리를 이뤄낸 장군님들의 마음을 다시 새기며,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자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조국 광복을 위한 독립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5

KBS다큐 '민족영웅 홍범도 장군'

봉오동·청산리 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

KBS 1TV
2020년 10월 24일(토) 21시 40~22시 40분

1. 기획 의도

-100년 전 상해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만주, 연해주의 모든 독립군을 임시정부 지휘 체계로 통합하여 국내로 진격할 계획을 수립한다. 그 독립군 통합의 중심에는 전설의 의병장 홍범도가 있었다. 홍범도는 각고의 노력 끝에 독립군 단체들을 통합하여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싸워 승리하였고 이는 식민지 조선에는 광복의 희망을, 일제의 식민지 경영에는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1922년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한 홍범도 장군 영상을 발굴하여 생전의 홍범도 장군의 모습을 최초로 공개한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중심에서 대한독립군을 지휘했던 최고의 게릴라, 홍범도 장군의 지도력과 전술, 분석하여 독립전쟁 100년의 의미를 돌아본다. 특히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한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 유해를 한국으로 봉환하기로 합의하여 방송의 의미가 더욱 크다.

2.주요 내용

홍범도 장군 생전영상 최초 공개

1922년 제1회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한 홍범도 장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외국어대 반병률 교수의 도움으로 KBS가 독점 공개한다. 극동민족대회는 제3인터내셔널 주도로 아시아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 각국의 독립투쟁 방략을 논의한 대회다. 서구열강들이 조선독립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오고 반면 소비에트 러시아가 식민지 반식민지해방투쟁을 지원하자 56명의 조선 대표들이 조선독립을 위해 이념과 종교를 넘어 함께 참석한 대회였다. 이번 발굴 영상에는 홍범도 장군뿐만 아니라 여운형 선생, 최진동 장군, 현순 목사, 김규식 선생, 김원경 선생, 권애라 선생 등의 모습도 볼 수 있다. 홍범도 장군 당시 나이 54세로 장군의 풍모와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등 생생한 장면들을 볼 수 있다. 이 대회에서 홍범도 장군은 레닌을 직접 만난 조선독립에 대한 방략과 의견을 나눈다. 특히 레닌은 조선 독립군 대장 홍범도에게 권총과 금화 외투 등을 선물한다.

육사 교수와 함께 분석하는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4일부터 6월7일까지 긴박하게 이어지는 봉오동 전투의 전 과정을 육군사관학교 군사학 이상훈 교수와 함께 일본군 전투상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일본군이 어떻게 패퇴하였고 일본군의 패배를 어떻게 왜곡하였는가를 상세히 밝혀 낸다.

최수종과 함께하는 청산리 전투 완전 분석

1920년 10월21~25일 동안 청산리 곳곳에서 전개된 홍범도장군, 김좌진 장군 부대가 펼친 유격전 전 과정의 시간대 별 동선을 KBS 제작진이 배우 최수종과 함께 최초로 밝혀내어 청산리 전투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게 그래픽화 한다. 특히 10여 회의 청산리 전투 중 하이라이트인 어랑촌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이 펼친 연합 전

술의 묘미를 볼 수 있다

독립군 사용한 기관총 스튜디오에서 공개

홍범도 장군이 일본군에게 뺏아 평생 사용한 아리사카38 소총과 독립군의 전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던 러시아제 맥심 기관총 실물을 스튜디오에서 공개한다. 아리사카 38소총은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이 사용하던 소총이고 맥심 기관총은 영화 〈봉오동전투〉에서 류준열이 일본군에게 퍼붓던 기관총으로 독립군들이 일본군 화력에 밀리지 않게 해준 소중한 총으로 국내에 거의 없는 희귀 유물이다.

독립군 통합의 주역 홍범도

1920년 상해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취임해 가던 이동휘 선생은 연해주에서 홍범도 장군과 무장독립투쟁노선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상해로 가기 직전 홍범도 장군에게 북간도로 가서 독립군 단체들을 통합할 것을 당부하고 자신은 1919년 11월에 상해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취임하여 임시정부의 외교 중심 투쟁노선을 무장투쟁 노선으로 바꾼다. 이런 배경에는 홍범도 장군이 무수한 전투 경험과 간도 연해주 조선 동포들의 깊은 신망이 있었다.

이소정 KBS뉴스9 앵커 홍범도 장군 방송 MC

전통적으로 KBS 메인 뉴스의 앵커는 9시 뉴스만 집중해 방송한다. 그러나 이번 〈민족영웅 홍범도〉 편은 그 역사성과 사료발굴의 의미가 커서 직접 진행을 맡았다.

국악인 하윤주 홍범도 장군을 노래하다

일명 정가 여신으로 불리는 국악인 하윤주는 이 방송 패널로 출연하여 홍범도 장군 방송 제작 PD가 직접 작사한 홍범도 장군에게 바치는 노래 〈푸른 조선의 향기〉를 불러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국가대표 사격선수 진종오

국가대표 사격선수 진종오 역시 패널로 참석하여 명사수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체험하고 의기를 받아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결의를 다진다.

3.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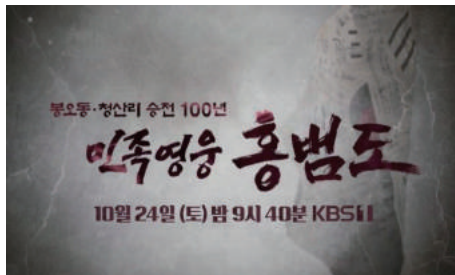
-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전문가의 설명과 연예인의 대담으로 시청자에게 정확히 전달
- 제작진과 군사학 전문가가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공동분석한 결과를 입체적으로 설명
- 대담 중간에 발굴한 생생한 영상, 사진 자료 및 현장 취재 등을 담은 VCR 플레이

4.출연자

사회 _ 이소정 기자(KBS뉴스9 진행)

패널 _ 반병률 교수, 이상훈 교수, 박소현 KBS아나운서, 배우 최수종, 국가대표 진종오, 국악인 하윤주

공연 _ 하윤주와 두 번째 달. 



봉오동·청산리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일시 _ 2020년 11월 6일 14:00
장소 _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홍범도 장군과 1920년 독립전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사회 _ 반 병 룰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주제 1 홍범도와 임시정부의 독립군 통합운동

발표 _ 이숙화 (한국외대 강사)
토론 _ 김용달 (전 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주제 2 봉오동 전투를 이해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

발표 _ 이상훈 (육군사관학교 교수)
토론 _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주제 3 청산리전투 전후 독립군단체들의 동향

발표 _ 오세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토론 _ 윤상원 (전북대 사학과 교수)

주제1 발표문

홍범도와 임시정부의 독립군 통합운동

이숙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지금까지 독립군 통합운동에 관해 논의된 주요 내용과 논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운동은 1920년 1월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론' 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둘째, 봉오동 전투 이전에 독립군 통합운동은 3단통합의 과정을 거쳐 6단체연합회를 거쳐 이루어졌다. 다만 봉오동전투 이전 독립군 통합운동은 임정의 방침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3단통합을 이끈 주도세력은 누군지에 대해서도 논쟁점으로 남아있다.

셋째, 통합운동의 결과를 실패로 보는 입장과 청산리전투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있다. 어떤 주장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밝혀야 할 부분이다. (중략)

1920년 봉오동·청산리전투는 절대독립을 실현하고자 했던 무장투쟁론자들의 승리의 표상이면서 동시에 침략적 제국주의에 의한 무자비한 피해의 역사성이 담겨있다. 그렇기에 1920년 이 시기는 독립운동 승전의 해로 기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역사 인식에 대한 성찰을 요구받기도 한다. 전쟁은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을 때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독립전쟁은 그렇지 않다. 나라 없는 국민에게 전쟁이란, 없는 상태에서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가족도, 가정도 모두 희생해야 하는 것이 독립전쟁이었다. 결과를 불문하고 그 희생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전쟁은 그 길로 향하는 과정과 참여의 방법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론은 전쟁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방략이었다. 반면에 중·아령 지역의 독립군 부대는 이미 군비를 확충하고 일본군과 전쟁수준의 소규모 교전을 치르고 있었다. 독립군 통합운동의 핵심은 이렇게 서로 다른 규모와 경험을 전자의 수준에 맞추어 재편한 것이었다. 당연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통합운동이었기에 그 과정도 지난 할 수밖에 없었다.

임시정부는 독립군 지형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임시정부 중심의 통솔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군사기반을 갖추지 못한 정부에서 독립적인 독립군단을 통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부구조가 단일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군의 성급한 통합은 군 내부의 불만을 가져오면서 한편으로 일본군의 경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봉오동전투 이후 독립군의 통합 속도와 더불어 일본군의 간도 유입 증가와 함께 더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다.

통합과정에서 독립군 단체는 형식상 통합을 이루었지만 내적 통합에는 실패했다. 그 원인에 대한 여러 요인들은 이미 논의되었기에 여기서는 임정의 위치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북간도에는 쟁쟁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 홍범도, 서일, 구춘선, 최진동 등 모두 자기 부대와 기반을 갖고 있었다. 각자 다른 위치와 자기 단체 중심의 대표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상해에 있는 임정의 통수권자를 대신에 일개 파견원이 복잡한 갈등을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정의 계획대로 통합은 이루어졌다. 독립전쟁으로 가는 통일의 목표를 이룬 것이다. 통합 이후에 통합 군사훈련도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 통합의 경험은 비록 시작에 불과했지만 청산리전투의 승리와 분명히 연결되었다. 📌



주제2 발표문

봉오동 전투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

이상훈 육군사관학교 교수

필자는 앞서 「봉오동부근전투상보」의 의문점들을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측 관련 사료들을 활용하여 전사상자의 이해와 일본군의 병력 규모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바 있다. 이어 「봉오동부근전투상보」와 일본군 및 독립군 지도 등을 활용하여, 실제 봉오동 전투가 발생했던 현장에 대한 위치 비정과 일본군의 퇴각 경로를 추정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그 연장 선상에서 봉오동 전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홍범도 일지」에 보이는 일본군 ‘후원병’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살펴보고, 일본군 ‘후원병’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투에 참가했는지 추정하고자 한다. 또 「봉오동부근전투상보」의 독립군 전사자 기록과 탄약 소모 기록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기록의 신빙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허술해 보이는’ 독립군 기록과 ‘치밀해 보이는’ 일본군 기록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기를 기대해 본다. (중략)

첫째, 「홍범도 일지」에 보이는 일본군 ‘후원병’과 일본군 상호 교전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봉오동 전투와 관련된 개인 일기와 증언록 등을 참조해 보면, 야스카와 추격대 외에 일본군 증원부대가 실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퇴각하던 야스카와 추격대와 투입되던 증원부대는 악천후로 인해 비파동 일대에서 상호 교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봉오동 전투와 관련하여 「홍범도 일지」가 주요한 단서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일본군 증원부대는 어떤 부대였으며, 어떻게 참가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본 증원부대는 헌병이나 경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월 ‘간도출병’ 상황을 참조해 보면, 공식 기록에서 확인 가능한 일본 정규군과 정원 외로 활동하던 헌병을 비롯한 경찰조직이 밀접하게 협조하며 참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헌병 및 경찰은 주로 토벌대로 구성되고, 일본군은 추격대로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봉오동부근전투상보」의 신빙성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본문 속 전투상황에서 서술된 전사상자 숫자와 보고서 말미에 정리된 전사상자 통계가 크게 차이난다. 또한 야스카와 추격대가 소비한 탄약수를 확인해 보면, 개인당 10발 내외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본문 속에 서술된 것처럼 야스카와 추격대가 독립군을 상대로 ‘치열한 교전’을 벌이거나 ‘대대한 손해’를 입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봉오동 전투의 실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독립군이나 일본군 자료 어느 한쪽만 맹신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봉오동 전투와 관련된 독립군 자료가 다소 ‘허술해 보인다’고 무시하거나, 일본군 자료가 상대적으로 ‘치밀해 보인다’고 맹신해서도 곤란하다. 봉오동 전투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독립군 자료와 일본군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노력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❸

주제3 발표문

청산리전투 전후 독립군 단체들의 동향 재검토

오세호 독립기념관 연구원

이 발표문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로 대표되는 ‘1920년 독립전쟁’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는 한편,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당시 독립전쟁에 참여한 일부 부대의 실제 움직임에 대한 상황을 재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자칫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로만 생각될 수 있는 ‘1920년 독립전쟁’에 대한 시각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 성과들의 시각을 정리하는 한편, 일제 측 자료와 ‘1920년 독립전쟁’에 참가한 이들의 회상록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로 상징되는 ‘1920년 독립전쟁’은 1910년대 만주와 연해주 등 해외 한인사회에서 조국의 국권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해 온 역량이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군을 조직해 나서는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만주와 연해주에 거주하던 수많은 배경과 사상을 가진 한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조국의 국권회복이라는 대의 아래 각자의 독립전쟁을 수행해 나갔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도 이러한 ‘1920년 독립전쟁’ 중 한 부분이었다고 여겨진다.

10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는 다양한 방면에서 축적되어 온 선구적인 연구들에 의하여 역사적 실상과 의의가 밝혀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1920년 독립전쟁’에 대한 궁금점은 남아있다. 1910년대 해외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주류를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1920년 독립전쟁’은 삼둔자전투와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등 일부 전투에만 국한시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한다. 이에 따라 안무와 최진동 등 여러 지역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1920년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독립군 부대들의 활동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여겨진다. 나아가 연해주 지역에서 조국의 광복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 수많은 독립군들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1920년 독립전쟁’의 100주년을 맞이한 지금, 독립전쟁에 대한 개념이 다시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특히 북간도와 연해주 지역에서 전개된 한인들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서로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무기 구입과 병력 징모 등 북간도 지역 독립군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연해주 지역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청산리전투 이후 독립군 부대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중로연합선전부(中露聯合宣傳部)’도 러시아 지역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연관성을 고려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연해주 지역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을 ‘1920년 독립전쟁’의 범주로 함께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4월 참변’과 ‘경신참변’도 ‘1920년 독립전쟁’의 한 흐름이라는 연속선상에서 바라보는 데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이러한 다양한 부문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될 때, ‘1920년 독립전쟁’이라는 하나의 큰 역사적 흐름에 대한 역사적 실체와 의의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❹



세 번째 주제 “청산리전투 전후 독립군 단체들의 동향”을 발표한 오세호 선생은 이박사와 마찬가지로 이 통합안이 북간도 독립군단체들이 실제로 합의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다만 이박사와 달리 이 통합안이 지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통합에 그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일시적인 통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이 합의안은 일본측 첩보자료에만 기록된 것으로 임시정부의 공식기록에서는 보이지 않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1920년 말 임시정부 각부서가 미주로부터 온 대통령 이승만에게 제출한 보고서나 일본당국이 1932년 윤봉길 사건이후 압수된 임시정부 문서들을 정리한 『조선민족운동연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이 통합안은 임정 파견원들이 제안했던 안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군단체들이 합의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본다. 1920년 7월 20일의 통합안의 실재나 실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박사나 오세호 선생의 발표를 통해서 북간도 독립군단체들이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된 상태에서 청산리전투를 맞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봉오동 전투 연구에서 우쓰노미야 타로(宇都宮太郎)의 일기, 적극 활용할 필요

두 번째 주제인 “봉오동 전투를 이해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토론자 장세윤 박사는 이상훈 교수가 인용한 조선군사령관 우쓰노미야 타로(宇都宮太郎)의 일기를 적극 활용할 경우 봉오동전투에 관한 새로운 사실과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쓰노미야 타로의 일기(1920년 6월 11일자)에 서술된 1919년 9월 예하 19사단장에게 보낸 훈령의 내용을 통해서 독립군의 국내진입작전의 목적을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즉, “독립전쟁의 전개와 국권회복”이라는 목표외에 “국제적 입장에서 발언권 강화 혹은 교전단체로의 인정, 한민족의 일제통치에 대한 저항 등”의 목표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봉오동전투와 관련하여 장세윤 박사는 일본군 출동 병력의 규모를 비롯하여 일본군의 전투상황 보고서 탄약 소모 통계, 편제인원 등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제기했다. 장세윤 박사는 봉오동전투와 관련하여 오래된 쟁점인 “피아간 봉오동 전투의 전과”나 “봉오동전투의 파급과 향후 민족운동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발표자의 의견을 물었다.

봉오동전투 참여 독립군단체와 지휘체계의 문제

봉오동전투와 관련하여 참여 독립군 단체들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현재로서 삼단연합을 구성한 대한국민회, 대한독립군, 대한군무도독부와 신민단 등 4개 단체로 정리되고 있다. 다만 의군부 소속의 김희영이 자신의 회상록에서 봉오동전투에 참전하였다고 기술한 점을 주목할 경우, 허군이 이끌던 의군부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바 봉오동전투 당시 독립군측의 지휘체계와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북로정일제1사령부(대한독립군)의 사령장관이었던 홍범도가 지휘하였다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세 번째 주제인 “청산리전투 전후 독립군단체들의 동향 재검토”는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독립군과 단체의 활동과 동향에 초점을 맞춘 논문이다. 발표자인 오세호 선생은 이를 위하여 당시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안무 군대’의 김희영, ‘홍범도 군대’의 이종학, ‘의군부’의 김재규 등의 회상록을 활용하였다. 봉오동 전투에 참가한 이들의 회상록에서 이들 군대의 행로와 동향을 추적한 점에서 돋보이는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오세호 선생의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청산리전투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안무군대(통칭 ‘국민회군’로 불리나 정식명칭은 ‘대한국민군’)를 비롯하여, 의군부 군대나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군대의 경우는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당시의 독립군군대들이 일본군의 침공과 ‘토벌’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군대라고 하여도 분산되어 다른 행적을 보였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국민회의 ‘대한국민군 사령부’ 창설(1920.8.10.)의 의미에 주목해야

오세호 선생의 발표문에서는 특히 봉오동전투를 이끌었던 삼단연합이 분열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추구한 바, 홍범도와 최진동간의 의견충돌, 국민회와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간의 충돌과정을 분석하였다. 오세호 선생의 발표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1920년 8월 13일에 국민회가 독자적인 대한국민군을 창설하였다고 주장한 점이다. 그동안 대한민국회 지방대표회의(1920년 8월 9일~12일)에에서 채택한 결의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이 회의 개최 중에 북로독군부에 참여하고 있던 국민회 계열의 군대가 ‘최진동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탈퇴를 선언했다는 소식에 접하자 대표들은 8월 10일(8월 13일이 아니라) 이 군대를 기반으로 대한국민군사령부 창설을 결의하고 간부들을 선임하였던 것이다. 1920년 5월 국민회 군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안무가 삼단연합의 북로독군부에서 부장(府長)인 최진동의 부관으로서 봉오동전투에 참여하였지만, 새롭게 창설된 대한국민군의 사령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국민회가 봉오동전투 당시 안무가 지휘했다고 하는 ‘국민회군’라는 독자적인 군대를 갖고 있었다는 일반적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하면 1920년 8월 10일에 독자적인 대한국민군을 창설하기 이전에 국민회는 독자적인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홍범도의 북로정일제1사령부를 자체 군대로 간주하고 지원하였다는 사실이다. 1920년 8월 중순에 이르러 국민회가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춘 ‘대한국민군사령부’를 창설하였다는 사실을 중시할 경우 1920년 북간도지역 독립군운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논평

학술회의에 대한 논평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홍범도 장군』 저자

학술회의의 기획의도: 백가쟁명식의 쟁점들을 정리할 필요

20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전투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된 이번의 학술회의의 전체 주제는 “홍범도 장군과 1920년 독립전쟁-주요 쟁점을 중심으로”이다. 개별적으로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폭넓게는 1920년의 독립군 활동은 역사학계의 오래된 연구주제이다. 양적으로 많은 논문과 단행본이 발간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근래 기념사업회 등 관련 시민단체들과 역사 관련 대중적 저술가들에 의하여 새로운 주장과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정 독립운동을가 위한 기념사업회에서는 해당 인물만을 우위에 놓으려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다른 독립운동을가 폄하하는 경우도 있다. 봉오동전투나 청산리전투에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전투에 관여하였다며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 주장을 하기도 한다. 좋게 말하면 생산적 결론을 위한 백가쟁명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전문 역사학자와 대중저술가들의 주장이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옥석을 가리기 어려운 혼란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의 학술회의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해온 기성학자와 신진학자들을 발표자와 토론자로 초청하여 기존의 쟁점들을 비롯하여 대중적 차원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임시정부의 대정방침과 독립전쟁노선은 안창호의 작품?

첫 번째 주제 “홍범도와 임시정부의 독립군통합운동”를 다룬 이숙화 박사는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한 임시정부의 독립군 통합정책과 이에 대한 북간도 지역 독립군단체들의 입장,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임시정부의 통합정책을 민단(행정)과 군단(군사)로 이원화하려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북간도지역에서 대립적인 관계에서 영향력을 다투었던 대한국민회와 대한군정서(북로군정서)의 서로 다른 입장과 대응을 추적하였다. 토론자(김용달)가 제기한 쟁점을 중심으로 논평해본다. 발표자는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하는 등 군사문제를 최우선으로 설정되어 있는 임시정부의 대정방침이 “안창호의 운동방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는 1920년 1월 3일과 5일 행한 신년연설에서 안창호가 “우리 국민이 단정교 실행할 6대사”를 발표하여 외견상 ‘독립전쟁의 선포자가 안창호로 알려졌다지만, “사실은 이동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원 각료들의 중의(衆意)”라고 지적하였다.

토론자의 지적은 옳다고 본다.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성립된 이래 외교론에 집중하였지만, 파리강화회의의의 종결 등 대내외적인 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11월 3일 국무총리 이동휘를 비롯한 통합임시정부의 각원들이 취임함으로써, 군사문제를 우선시하는 대정방침이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취임식 이후 통합임시정부의 총리, 총장, 차장이 참여하는 ‘국무협의회’는 각부처로 하여금 부문별 시정방침안을 마련케 하고 미주에 있는 대통령 이승만은 물론, 재야의 인사들에게도 의견을 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1919년 말에 이르러 임시정부가 시행할 대정방침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안창호는 이 대정방침을 상해민단이 주최하는 신년연설에서 자기식으로 대외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임정의 대정방침과 독립전쟁노선을 안창호의 개인 작품으로 파악하는 오랫동안의 잘못된 인식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토론자는 독립전쟁론이 만주에서만 추진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구현되었는데, 내무총장과 국무총리 대리로서 초기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안창호가 그 중심인물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안창호는 국내에서 연통부와 교통부 설치와 민사와 군사의 ‘내정통일책’을 구사하는 등 나름대로 독립전쟁론을 추구하였으며, 이는 이용, 안정근, 왕삼덕 등 파견원을 통해서 북간도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봉오동전투 이전에 성립되었던 대한국민회, 홍범도의 북로정일사령부,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간에 달성된 삼단연합은 이러한 임정의 노력의 성과라는 것이다.

북간도 독립군단체들의 통합안(1920년 7월 20일)의 실재성과 실효성

발표자는 1920년 7월 20일에 이르러 임정파견원들의 노력으로 북간도에서 민정기관으로 대한민단(국민회)과 군사기관으로 대한군정서 중심의 ‘동도군정서’와 홍범도를 주축으로 하는 ‘동도독군서’가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이 합의가 실현되지 않고, 8월 중순 봉오동 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렀던 삼단연합이 붕괴되고, 9월에 이르러 국민회와 군정서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 분열된 상태에서 청산리전투를 맞았다는 설명이다.

1920년 7월 20일 북간도의 독립군단체들간에 민정기관과 군사기관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한바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군무도독부와 의군부의 서행(西行)의 이유는?

오세호 선생의 발표문에 대하여는 윤상원교수가 토론하였다. 우선 봉오동전투이후 1920년 8월의 삼단연합의 붕괴이후 홍범도군대가 서쪽으로 간 이유에 대하여는 기존연구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나 군무도독부와 의군부가 서쪽으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군의 침공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독립군단체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동한 것이지만, 여러자료에 의해서 추정할 뿐이다.

우선 다른 군대와 달리 군무도독부를 이끌었던 최진동은 중국당국자들과의 오랜 친분이 있다. 그가 삼단연합의 북로독군부 부장에 선임된 것은 봉오동이라는 독립군집결지가 그의 오랜 근거지였다는 점외에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한 때문이라는 독립군 참여자의 회상도 있다. 최진동이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대로 이동한 데 대하여는 8월 중순 중국군의 맹부덕(孟富德)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는 일본첩보보고서의 기록도 참고할 만하다.

이동휘와 홍범도의 관계

둘째로 윤상원 교수는 “홍범도가 국민회 명령에 불복하고 독단적으로 청산리 방향으로 옮겨간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홍범도가 노령에서 북간도로 들어올 때부터 줄곧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면, 홍범도의 청산리행은 “이동휘와의 의견 조율이 분명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동휘와 홍범도의 관계는 독립운동노선상으로 가깝고 1910년대 후반 이래 오랫동안 긴밀히 협의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그동안 면밀히 검토해보지 않은 주제였다. 이동휘와 홍범도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소원해졌다고 분명히 단정할 수 있는 사건은 1921년 6월의 자유시참변이다. 홍범도는 이동휘를 지도자로 하는 상해파(고려공산당) 계열의 사할린군대와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사할린군대에 대한 공격에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가해자인 이르쿠츠크파(고려공산당)측에 섰다.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이 두사람의 입장이 갈라진 것인가. 현재로서는 초지일관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국민회와 홍범도의 관계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러시아로부터 ‘대한독립군의용대장’의 직함으로 북간도로 들어온 홍범도는 곧바로 국민회의 인적·물적 지원을 받아 ‘북로정일제1사령부’를 이끌었다. 이러한 관계는 군무도독부와와 삼단연합과 봉오동전투 이후 임시정부 이동휘가 파견원 이용을 내세워 추진했던 명월구 사관학교 설립과정에서도 유지되었다.

이러한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은 1920년 8월10일 국민회 지방대표자회의에서 국민회가 직속의 대한국민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안무를 사령장관으로 하는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게 된 때이다. 그리하여 국민회계열 군인들이 그동안 홍범도의 지휘체계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안무가 지휘하는 국민회 직속의 독립적 지휘체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마침내 홍범도는 최진동의 군무도독부와 국민회의 삼단연합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동휘와 홍범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한다. 이후 홍범도는 최진동의 독군부는 물론 국민회와 결별하고 독자노선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1920년 9월 20일경 홍범도가 1920년 5월말 이미 연합에 합의한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의 두 군정서와 통합하여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구성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홍범도는 청산리전투이후인 1920년 11월 백두산 산울 안도현 삼인방에서 서로군정서(교성대)와 광복단과 연합하여 대한의용군을 조직하고, 북만주 밀산으로 이동해서는 앞서 도착해 있던 북로군정서와 연합하여 새로운 삼단연합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군무도독부의 청산리전투 참여문제

셋째로 군무도독부의 청산리전투 참전 여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발표자는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토론자는 “군무도독부의 일부분이 청산리 전투로 왔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일까?”하고 질문하였다.

사실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가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은 임시정부 군무부의 11월 12일자 발표를 실은 『독립신문』 1920년 12월 25일 자 4면에 실린 기사 「북간도에 재(在)한 아(我)독립군의 전투 정보」이다. 여기에는 최진동이 ‘3연대장’으로서 ‘제1연대장’ 홍범도, ‘제2연대장’ 김좌진과 더불어 청산리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임시정부의 발표라고 해서 이 기사는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임시정부 군무부의 발표는 구체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선전 홍보’의 성격이 강하여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제1연대장’, ‘제2연대장’, ‘제3연대장’이라는 직함은 1920년 10월말에 이르러 임시정부가 마련한 북간도 독립군단체 통일안, 즉 ‘북로사령부’ 조직(사령관: 채영, 참모장 조성환)에 따른 직책이다. 이 조직체계에서 대한국민회 군무위원회위원장(1920년 5월까지), 북로독군부의 부관(5월말 ~ 8월 10일), 국민군 사령장관(8월 10일 ~)을 지낸 안무는 제1연대장 홍범도 휘하의 제1대대장으로 선임되어 있다. 이 기사를 근거로 홍범도가 봉오동전투 당시 ‘연대장’으로(‘북로정일제1사령장관’으로서가 아니라) 독군부부장인 최진동의 지휘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료에 대한 엄중한 비판

없는 선부는 설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북간도와 연해주 등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신민단

넷째로 윤상원 교수는 “봉오동전투에도 참여하고 청산리전투에도 참여”하여 그 중요성에서 국민회군 보다 앞서는 신민단을 다루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사실 신민단의 주력은 훈춘에 근거를 두고 있었고,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 참여한 신민단 군대는 왕청현에 근거를 둔 신민단 지부 소속이었다.

성리교라는 침례교 계통의 ‘독립교회’를 기반으로 김규면이 이끌었던 신민단은 북간도지역에서 뿐만아니라 연해주의 솔발관군대나 수청군대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 군대였다. 북간도와 연해주지역의 항일무장운동 연구에 있어서 신민단 연구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김규면과 신민단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오세호 선생이 의도적으로 발표에서 배제하였지만 그의 향후 연구를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이범석의 『우동불』과 서로군정서의 청산리전투 참여문제

이 논평에서 토론자나 참석자들이 제기한 다른 문제들을 다 망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간에는 이범석의 『우동불』의 서술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사료, 개인 회고록이나 전기물의 경우 특히 면밀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우동불』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지만, 이 저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전혀 틀린 것만은 아니다. 홍범도에 대한 폄하적 서술, 북로군정서와 국민회간의 충돌과정에 관한 서술, 특히 사건 관련 국민회 지도자들에 대한 악의적 평가는 사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른 사료와 크로스 체크를 통해 걸러내면 된다.

이범석이 이 책에서 강조한바 이청천의 서로군정서(교성대)가 청산리전투에 참여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한 바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청천의 서로군정서 교성대원들의 경우 훈련은 잘되어 있었지만 전투를 수행할만한 총탄을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청산리전투 이후인 1920년 11월 서로군정서가 홍범도 군대와 연합한 것은 이 두 단체가 상호 보완적이었기 때문이다.

홍범도, 1920년 북간도에서 꾸준히 연합을 추구한 독립군지도자

홍범도는 1919년 가을 러시아로부터 북간도로 들어온 이후 통합에 가장 충실했던 독립군지도자였다. 처음에는 ‘노령주둔대한독립의용군’으로 북간도로 들어와서 국민회와 제휴하여 ‘북로정일제1사령부’를 조직하고, 군무도독부와 삼단연합을 이루었다. 1920년 8월 삼단연합이 깨진 후에는 1920년 9월 20일경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와의 삼단연합에 합의하였으나, 일본군의 침공에 따른 청산리전투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청산리전투후 11월에 이르러 백두산 안도현 삼인방에서 서로군정서, 광복단과 연합을 이루고 북만주의 밀산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먼저 와 있던 북로군정서와 1921년 2월초에 새로운 삼단연합을 달성하고 우수리강을 건너 러시아령 이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㉔



'청산리전투'와 홍범도 장군

오세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1. 왜곡된 기억, 과거 한국사회에서 '청산리전투'와 홍범도 장군

"홍범도와 안무(安武)가 이끄는 국민회(國民會)와 최진동(崔振東)이 이끄는 의군부(義軍府) 등은 8일 밤 도착해 작전회의를 열었다. 김좌진을 총지휘, 홍범도, 최명록 두 분을 부사령으로, 여행 단장이었던 내가 전직 총지휘, 즉 전투사령관으로 부서를 정했다. 그런데 9일 밤 새벽에 보니 아무 연락도 없이 모두들 떠나가 버렸고, 다만 한민단 1개 중대만 남아 있었다. 3개 단체는 아무말 남기지도 않고 밤의 장막과 함께 사라진 것이다."

대한군정서(大韓軍政署)의 일원으로 '청산리전투'에 주역으로 참여한 철기 이범석(鐵驥 李範奭, 1900~1972)은 자신의 회고록인 「우동불」에서 '청산리전투' 직전의 상황을 위와 같이 회상했다. 그는 홍범도 부대가 작전회의 다음날 말도 없이 떠난 이유에 대해 "부서와 임무 배당에 불만" 때문이라는 사실과 함께 "5만이 넘는 적의 대병력의 기세에 압도당해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천수평(泉水坪)에서 일본군과의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범도 부대가 협공하지 않은 사실과 안도현(安圖縣) 입구인 우도양 창 계곡에서 부주의한 처사로 인해 일본군의 포위망에 걸려 수십 명의 부대원을 잃게 되었다고 홍범도를 비판했다. 그리고 이범석은 "홍범도 장군이 청산리 싸움에 참여하려다 그만두고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타격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홍범도의 실책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청산리전투'에 참전한 주역이자 중국 동북항일군,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에 참여하며 한평생을 무장독립운동에 헌신해 온 이범석의 회상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와 학계에서 '청산리전투'에서의 역할, 나아가 홍범도 장군의 항일무장투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경향은 해방 직후인 1947년 채근식의 「무장독립운동비사」, 1965년 김승학의 「한국독립사」, 1973년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의 「독립운동사」에서도 나타났다. 심지어 1989년에는 북한도에서 병사한 홍범도 장군의 묘소가 이곳에 있다는 연변측 인사들의 주장이 한 일간지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소련의 고려인 동포들은 홍범도 장군의 자필 이력서와 자서전, 그리고 묘소 사진을 공개하며 이를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은 소련에서 말년을 보낸 홍범도 장군의 특성상 분단과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자료 접근에 대한 한계에 기인한 바가 컸다. 그리고 '청산리전투'에 참가한 일부 인사들의 증언과 주장을 객관적인 비판 없이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한국 학계에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지면서 '청산리전투'에서의 역할과 항일무장투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청산리전투' 이전 독립군 부대 통합 노력과 '청산리전투' 당시 대한군정서와 연합하여 일제로부터 승리한 '어랑촌전투(漁郎村戰鬪)'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독립군의 연합결렬과 홍범도 장군의 부단한 노력

'1920년 독립전쟁'의 '제1회전'이라고 평가받는 '봉오동전투' 당시 홍범도는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및 대한국민회와 연합해 대한북로독군부(大韓北路督軍府)를 결성하여 승리를 이끌어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북한도의 독립군 부대를 통합하기 위해 안정근(安定根)과 왕삼덕(王三德)을 파견하여 통합대회를 개최하고 부대 통합을 논의했다. 그 결과 '민단(民團)과 군단(軍團)의 이원화된 통합군단'을 결성하는 방안에 따라 북한도 지역의 독립군 부대들은 동도군정서(東道軍政署)와 동도독군부(東道督軍府)의 군무기관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이 통합은 '일시적'인 통합에 그치고 말았다. 대한군정서 내부에서는 대한국민회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이 통합안에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봉오동전투 당시 '삼단연합'의 한 축을 담당했던 최진동의 반대였다. 최진동은 민단의 업무는 대한국민회가 담당하고 군단의 업무는 군무도독부가 담당하는 '통합군단'을 결성하기로 대한국민회와 합의하고 대한북로독군부를 창설했다. 그러나 1920년 7~8월 동안 3차례에 걸친 연합회의 결과는 최진동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대한국민회는 이원화된 통합군단의 민단으로 그 역할과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던 반면, '통합군단'의 군무기관이었던 대한북로독군부는 동도독군부 산하로 편제되면서 상징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최진동은 대한국민회측 인물이었던 대한북로독군부 제3대장 강승범(姜承範)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측근이었던 김호석(金豪碩)을 임명했다. 그러자 대한북로독군부 제3대에 소속되어 있던 국민회 출신 병사 100여 명이 무기를 들고 홍범도 부대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최진동이 대원들을 파견해 국민회 동부지부장 양도현(梁道憲)을 체포하자, 군무도독부와 대한국민회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한국민회는 즉시 홍범도에게 최진동을 공격할 것을 명했지만, 홍범도는 이에 응하지 않고 부대를 이끌고 화룡현(和龍縣)으로 이동했다.

홍범도가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왔던 대한국민회 측의 군무도독부에 대한 공격 명령을 거절하고 화룡현으로 이동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독립군들의 연합을 추구해왔던 홍범도의 성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홍범도는 일본군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같은 독립군들 간의

충돌을 받아들이기 수 없었고, 이에 화룡현 방면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연합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범도는 화룡현 이도구(二道溝) 방면으로 이동해 국내 진공 작전을 도모하는 한편, 10월 일제가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간도지역을 침공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홍범도는 10월 13일 화룡현으로 이동해 온 대한신민단(大韓新民團)과 한민회군(韓民會軍), 대한국민회군(大韓國民會軍) 등의 독립군 대표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연합부대를 편성하여 연합작전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홍범도는 화룡현 삼도구(三道溝)에 집결한 대한군정서 측과도 연합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논의하고자 했다. 하지만 홍범도 연합부대와 대한군정서군은 일제의 공격으로 연합에 이르지 못하고 각자 일본군과 '청산리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이렇듯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끈 '삼단연합'이 붕괴되는 등 북한도 독립군 단체들의 '통합군단'을 둘러싼 갈등 상황 속에서도 홍범도는 독립군들의 연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청산리전투'를 준비해 나갔다.

3. 연합작전의 승리, 어랑촌전투

10월 21일 독립군을 추격해 청산리 골짜기 안으로 들어온 일본군과 김좌진이 이끄는 대한군정서의 백운평전투(白雲坪戰鬪)를 시작으로 '청산리전투'가 시작되었다. 곧이어 홍범도가 이끄는 연합부대도 이도구 어랑촌 서북방에 위치한 북완루구와 남완루구 사이의 중간 지대에서 일본군의 아즈마지대(東支隊)와 격전을 벌인 완루구전투(完樓溝戰鬪)를 치르게 되었다. 홍범도는 후일 자신의 「일지」에서 당시 전투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홍범도 부대가 완루구의 한 마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일본군은 주력부대를 출동시켜 토벌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를 미리 예측한 홍범도는 밤 사이 병사들을 집결해 산 높은 곳에 매복시키고, 포위망 안으로 들어온 일본군에 집중공격을 가해 승리를 이끌어냈다. 일본군은 후일 「간도출병사(間島出兵史)」에서 완루구전투에 대해 '밀림 중에 길을 잃어 남양촌에 이르러 숙영했다'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완루구전투는 홍범도 연합부대가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철저한 작전 수립을 통해 일본군으로부터 이끌어 낸 승리였다.

한편 백운평전투를 치르고 이도구 감산촌에 도착한 대한군정서군은 천수평 마을에 일본군 1개 기병대가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이범석이 지휘하는 연성대를 선두로 돌격전을 감행하여, 일본군의 주력이 어랑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좌진의 대한군정서군은 어랑촌 서남방 표고 874고지를 점령하고 유리한 지형을 이용한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일본군의 공격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한군정서와 일본군과의 전투는 점차 소모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대한군정서군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대한군정서군은 일본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사격을 계속해야만 했지만, 군마 등이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탄약 등을 추가로 보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일본군은 대한군정서군을 포위하고 포병 공격을 가하는 한편, 대한군정서군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했다.

완루구전투를 치르고 안도현 방면으로 철수하고 있던 홍범도 연합부대는 어랑촌에서 대한군정서군이 일본군과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방향을 바꿔 어랑촌으로 향했다. 홍범도 연합부대는 대한군정서가 일본군과 전투를 치르고 있는 표고 874고지 인근의 883고지를 점령하고 일본군을 공격했다. 홍범도 연합부대의 갑작스러운 공격은 일본군의 추후방을 위협하고, 포병 공격을 비롯한 공세를 늦춰 대한군정서군을 지원했다. 당시 대한군정서군은 홍범도 연합부대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홍범도 연합부대의 지원으로 일본군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한군정서군은 전투력을 온전히 보전한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어랑촌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홍범도 연합부대의 지원으로 무사히 철수한 대한군정서군은 이후 맹개골전투와 쉬구전투, 천보산전투 등을 통해 일본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청산리전투'에서 승리의 주역이 되었다.

'청산리전투' 당시 가장 대규모 전투였던 어랑촌전투는 홍범도의 항일무장투쟁 핵심인 '연합정신'이 빛을 발한 전투였다. 독립군 부대들은 일본군의 포위 토벌 상황 속에서 '적강아약(敵強我弱)'의 형세하에서 공세적인 정서를 극복하고 은인자중하며 분산·은폐의 방법으로 전투를 피하면서 반일 역량의 보존에 힘쓸 것'을 가장 중점으로 두며 '반일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적들의 토벌권에서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홍범도는 위기에 빠진 대한군정서군을 지원하기 위해 어랑촌으로 향했고, 연합작전을 통해 어랑촌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이러한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 부대의 통합 노력과 연합작전의 승리였던 어랑촌전투에서의 보여준 독립정신은 '1920년 독립전쟁'의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



연변지역 일부 인사들이 왜곡 주장한 묘지 _ 용정시 석정향 용천촌(사진출처: 독립기념관)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중국민족 ‘항일전쟁’ 역사와 정신의 중심기관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그의 여행기에서 중국 베이징에 있는 ‘노구교(蘆溝橋)’를 세계 최고의 훌륭한 다리라고 격찬을 하였다. 이같이 아름다운 다리 앞쪽에는 장엄하면서도 웅장한 중국 제일의 박물관이 세워져 있어, 중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이 박물관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중국민족 전체가 용감하게 싸워 이긴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다.

매년 9월 3일 항일승리 기념일이 되면,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이 모두 이 기념관에 모여 성대한 항전열사 헌화식을 개최한다.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월 3일 오전 10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관 앞에서 헌화식이 거행되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에서 중국 주둔 일본군들이 1937년 7월 7일 완평성(宛平城) 성내에 포격을 가해는 침략행위가 일어났다. 이 사건을 일반적으로 ‘노구교사건’, 중국에서는 ‘7.7사변’이라고 부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중국 대륙을 본격적으로 침략하는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 근대사는 1840년 아편전쟁과 같은 서구제국주의의 침략을 필두로, 1894년 청일전쟁 이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하는 역사였다. 그렇지만 반제국주의 투쟁사에서 보면, 중국 인민이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제국주의를 퇴치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역사이기도 하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1931년 만주침략 이후 1945년 패전할 때까지 14년 동안 900여개 중국의 크고 작은 도시를 공격하고 점령하였다. 그동안 3,500만 명의 중국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6,000억 달러 이상의 재산적 손실을 입었다.

중일전쟁 초기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지구소모전략(持久消耗戰略)으로 소극적으로 항전을 하다가 많은 인명 손실과 영토 침략을 당하게 되었다. 1945년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항일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중국혁명을 촉진시켰던 항일전쟁의 역사를 기념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1982년에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사건은, 일제의 침략을 당했던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또 다시 고통을 주었다. 마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으로 보고, 아시아 각국은 격렬하게 대응하였다. 한국에서 역사 왜곡 문제는 일본 정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운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독립기념관 건립으로 이어졌다. 필자가 근무하는 독립

기념관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정성스러운 성금을 모아 1987년 8월 15일 개관하였다. 중국에서 항일전쟁 기념관이 건립된 원인도,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항일전쟁기념관은 중일전쟁 발발 50주년이 되는 1987년 7월 6일 개관하였다. 개관 당시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한 초기로 경제적으로 매우 빈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 개의 전시관만 열었다. 비록 단 두 개의 전시관만 개관하였지만, 전시 내용이 매우 신선하여 관람객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기념관의 설립을 계기로 중국에서는 항일 전쟁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크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항일전쟁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애국주의 교육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항일전쟁사 연구를 주도하기 위해 1991년 중국항일학회가 성립되어 그 사무소를 기념관 내에 두었고, 항일전쟁사 연구 전문가와 사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집결시켰다.

기념관은 개관 이후 1995년 2년에 걸친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1997년 7월 6일 정식 개관하였다. 증축공사로 4개의 전시관, 특별전시관 등 부대시설이 추가되었다. 2005년 세계반파시즘전쟁 및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60주년을 맞이하여 인민폐 1억 위안을 투자하여 대대적인 외부환경 공사를 하였다. 기념관 앞에서 약 2만 평방미터의 광장을 건설하여 대규모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람에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다. 2015년 항일승전 70주년에도 대대적으로 전시관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었다.

기념관은 베이징시 노구교 강변의 완평성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1987년 개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증축과 시설 보안을 통해 중국 국가 1급 박물관이 되었다. 현재 기념관 부지는 3.6만 평방미터, 건축면적은 4만 평방미터, 진열면적은 약 1만 4천 평방미터이다. 기념관에는 총·칼·기관총·포탄 등 항일전쟁 당시 사용하였던 무기들과 수많은 문건 등 3만 여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기념관을 다녀간 관람객은 약 4,000만 명에 이르러 중국 애국주의 교육의 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도형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기념관의 정면은 평화광장이 있고, 광장의 중앙에는 중화민족의 각성을 상징하는 ‘노구교 깨어난 사자(蘆溝獅醒)’가 우뚝 서 있고, 그 아래에 플랫폼 위에는 구리로 단조한 ‘독립자유훈장’의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다. 기념관의 전체 구역은 장엄하고 엄숙하며 명나라 때 세워진 완평성과 서로 잘 어울린다.

기념관의 전시는 중국의 국부적 항전, 전 민족적 항전, 항전의 버팀목, 일본군의 폭행, 동방의 주 전쟁터, 정의는 많은 이들의 지원을 얻는다, 위대한 승리, 역사를 명기하자 등 8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내용은 주로 역사사진과 유물로 되어 있고, 경관·유화·조각·영상물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인민이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 용감히 맞서 싸운 항일전쟁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을 침략한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전시관에는 중국지역에서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던 한국인 정용성이 작곡한 ‘팔로군 군가’가 커다란 동판에 새겨진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한편,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에서는 2015년 항일승전 7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 제2차세계대전박물관협회’를 창립하였다. 이 협회는 반제국주의 전쟁에 참가한 20여 개국의 관련 박물관들이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독립기념관이 유일하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필자는 2017년 7월 항일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중일전쟁 발발 8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박물관의 세계평화 공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중국은 현재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미국과 세계의 패권을 두고 커다란 충돌을 벌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정부는 ‘항일전쟁’의 역사를 통해 인민들에게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항일전쟁’ 정신의 중심기관이 바로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다. 🇨🇳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정면에 있는 '노구교의 깨어난 사자상'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앞에 있는 세계 최고의 다리, 노구교



중일전쟁 기념식(2014년 7월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노전사들과 함께 '독립자유훈장' 제막식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전시물



중일전쟁 발발 8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 장면



유관순 열사 기념관 전경 (사진출처 _ 기념관 홈페이지)



사진출처 _ 한국관광공사



사진출처 _ 한국관광공사

“옥 속에 갇혀서도 만세 부르다 푸른 하늘 그리며 숨이졌대요”

-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찾아서 -

정이숙 카피라이터

올해는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해서 겨우 열 아홉에 죽임을 당한 열사의 기념관에 가 보리라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천안에 있는 기념관은 상설전시관 개편 공사에 들어가 11월 말까지 임시 휴관 중이었다. 서울 이화여고에 있는 기념관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공개 상태였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유관순 열사 기념관의 흔적을 더듬었다.

*유관순 열사 기념관 개요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길 38 유관순 열사 유적지

개관일 : 2003년 4월 1일

건물규모 : 542.7㎡(지상 1층, 지하 1층)

주요시설 : 전시실, 영상실, 체험공간

건물양식 : 팔작지붕 전통 한옥 형태

유관순 열사 기념관은 열사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3년 4월 1일 개관하였다. 기념관은 광장, 열사의 동상, 추모각, 순국자 추모각, 열사의 거리, 유관순 열사 기념공원 등이 있는 유관순 열사 사적지 안에 자리하고 있다.

기념관은 열사의 출생에서 순국까지의 일대기를 전시물과 영상,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유관순 열사의 수형자 기록표, 호적 등본, 재판기록문 등의 전시물과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한 부조, 재판 과정을 담은 매직 비전, 열사의 생애를 닥종이 인형으로 재현해 놓은 코너 등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특히 일제가 서대문 경찰서 건물을 신축할 때 주로 독립 투사들을 고문할 목적으로 고등계 취조실에 설치한 '벽관'을 실제 크기로 재현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벽관은 일제의 잔악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고문 도구인데, 한 사람이 들어가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아 2~3일 갇혀 있으면 전신이 마비된다고 한다. 또한 벽관 내부 윗부분에는 전기고문기구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관람객들은 벽관 체험을 통해 일제의 잔악성과 열사의 험난한 감옥 생활을 잠시라도 실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현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제의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1916년에 감리교 선교사 사애리스 부인(엘리스 샤프, Alice Sharp)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교비생(학비를 면제받고 졸업 후 교사로 일하는 학생)으로 편입학하고, 1919년 이화학당 고등부로 진학하였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유관순은 만세 시위에 참가하였고, 임시휴교령으로 이화학당이 폐교하자 고



사진출처_기념관 홈페이지



사진출처_네이버 <프레임> 블로그



사진출처 _ 뉴스스



사진출처 _ 게티이미지코리아

향 천안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온 유관순은 교회와 청신학교를 찾아다니며, 서울에서의 독립 시위 운동 상황을 설명하고 천안에서도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4월 1일(음력 3월 1일) 아우내 장날을 기하여 만세 시위가 계획되었다. 당일 모인 수천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맹렬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유관순의 부모님은 시위 현장에서 조선총독부 헌병들이 군중을 향해 쏜 총에 맞아 살해되었다. 시위대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유관순은 아우내 만세시위 주동자로 일제 헌병에 붙잡혔다.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여 범죄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하였고, 고문을 받으면서도 협력자와 시위 가담자를 발설하지 않았다.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감옥에서 옥중 만세시위를 주도하였고,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모진 고문에 의한 방광 파열로 서울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했다. 10월 12일 이화학당에서 유관순의 시신을 인수하여, 10월 14일 정동교회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열사의 시신은 이태원 공동묘지에 묘비도 없이 파묻혔다. 이태원 공동묘지는 1935~36년 일제가 군용기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망우리공원으로 이전했다. 일제는 이때 유관순 열사의 무덤을 포함해 이름 없는 2만8000여 분묘를 한꺼번에 화장하여 함장했다. 때문에 현재 유관순 열사의 묘는 찾을 수 없고 함장한 자리에 비석만 남아있다.

만약 내가 유관순 열사와 같은 처지라면 어땠을까? 잡힐 것을 뻔히 알면서 시위대 맨 앞에 서지도 못 했을 테고, 고문 도구만 보고도 동지들의 이름을 술술 불었을 것이다.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지금 당연한 것들이 많은 독립지사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임을 다시 깨닫는다.

포털 뉴스에서 사진 한 장을 보았다. 사진 속의 소녀는 겨우 열 세 살이었다.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뒤로 넘겨 묶어 귀가 뾰긋하게 보였다. 다부진 입매 초롱한 눈빛이 흐릿한 사진 속에서도 도드라졌다. 유관순 열사의 어린 시절이라고 추정되는 사진이었다. 얼굴의 출처는 유 열사가 다니던 공주 영명학교의 여학생과 교사가 1915년 7월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유관순열사 수행자 기록표에 있는 열 아홉 열사의 모습과 꼭 닮아 보였다.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한 해에만 무려 1,542회에 걸친 만세 시위운동이 있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전국에서 4만6000여 명이 체포□구금되었고, 7600여 명이 사망, 1만6000여 명이 부상했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꽃 같은 목숨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진다.

삼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옥 속에 갇혀서도 만세 부르다
푸른 하늘 그리며 숨이졌대요
(유관순 노래 / 강소천 작사, 나운영 작곡)

어릴 때 부르던 유관순 노래를 검색해 보았다. 지난 9월 28일 열사의 순국 100주기 추모식이 열린 망우리 공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눈에 띄었다. 까만 치마에 흰색 한복 저고리를 차려 입은 아이들의 모습이 유관순 열사의 어린 시절을 연상케 했다. 열사의 짧은 생을 간결하게 들려주는 노래가 사가 새삼 가슴에 절절히 와 닿았다. 한국인 모두의 영원한 언니이고 누나인 유관순 열사... 코로나가 겹치면 꼭 그의 사적지에 가보리라 다짐한다. 

홍범도 장군의 동지 최병준(최의관)

홍범도 장군이 전설적인 의병장·독립군대장으로 평가받게 된 데에는 그의 뛰어난 지도력과 활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병투쟁과 독립군운동에서 그와 뜻을 같이하고 믿고 따랐던 수많은 애국자와 대원의 열성과 충심에 힘입은 바 크다. 이들 가운데 홍범도 장군이 마음속으로 가장 신뢰했던 동지를 꼽으라면 단연 애국지사 최병준(崔丙俊, 1875~1919) 선생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그의 동시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망각되어진 철저했지만 비극적이었던 그의 삶을 소개한다.

아들 홍용환과 최병준

1908년은 항일의병투쟁이 가장 치열했던 한 해였지만, 일본군과 일진회의 귀순·회유 공작과 ‘추격전’이 극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홍범도는 일진회 김원홍, 임재덕, 최정옥 일당의 고문으로 부인 단양이 씨를 잃고,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큰아들 양순을 잃었다. 끊임없이 계속된 전투와 일본군의 끈질긴 추격으로 홍범도 군대는 1908년 여름에 이르러 탄약의 소진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홍범도는 후일의 재기를 기약하며 마침내 1908년 11월 2일 의병 40명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중국 통화(通化)로 망명했다. 그의 나이 40세였으며, 그의 남아 있는 유일한 혈육, 12살의 어린 아들 홍용환이 동행했다.

해의 망명이후 1910년대 내내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기에 정신없었던 홍범도를 대신하여 용환을 키운 이는 연해주 추풍 당어재골에 거주하고 있던 최병준이었다. 최병준은 홍범도의 기대와 믿음에 충심으로 부응하여 10년 동안 용환을 친자식처럼 길러주었다. 최병준은 적으로부터 용환이를 보호하고자 홍범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하며 이름도 러시아식으로 ‘최이완’이라고 바꾸었다. 뿐만아니라 그는 자신의 두 아들 최형식, 최찬식과 함께 마을의 조선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였다. 최병준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 속에서 이들 세 청년은 항일혁명전선에서 크게 활약하게 되는 결출한 혁명투사로 자라났던 것이다.

당시대에는 잘 알려졌던 항일투사였지만, 오늘날에는 잊혀진 인물

애국지사 최병준은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인물로 오늘날 그의 이름을 아는 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를 만났던 사람들조차 그를 그저 ‘최의관(議官)’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여러 자료에도 그는 ‘최의관’ ‘최인관’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날의 전문 역사학자들조차 ‘의관(議官)’을 ‘의관(醫官)’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을 정도로 그의 진면목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당시대 항일운동 활동가들이 그의 존재를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일제 당국자들이 남긴 첩보 보고서에 들어 있는 ‘폭도두목’ 또는 ‘불령선인’ 명단에도 그를 일컫는 ‘최의관(崔議官)’이라는 이름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들 보고서가 한인들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때, 당시 한인들 사이에서도 그는 철저한 항일투

사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한인들이 그를 ‘최의관’이라 불렀던 것은 그가 대한제국 시기 중추원(中樞院) 의원(議員)을 지낸데서 비롯된 것이다.

항일혁명가들은 자신들의 회상기에서 그를 ‘추풍(수이풍) 당어재골에 살고 있는 애국지사’로서 기록하여 놓았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청년시절, 즉 3·1운동이후에 혁명운동에 뛰어들었던 이들로 추풍 당어재골을 방문하여 최병준을 만났거나 그에 관한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홍범도만이 그의 『일지』에서 그를 ‘최의관(최병준)’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놓았다. 그만큼 최병준에 대한 홍범도의 마음이 각별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군무도독부 군대 소속으로 봉오동전투에 참전하였던 황운정은 자신의 자전적 회상록에서 최병준을 언급해 놓았다. 그는 봉오동전투 후에 무장구입의 임무를 띠고 왕청현(汪淸縣) 나자구(羅子溝)에 갔다가 그곳 지방 청년 김도구, 전창순, 최한봉, 최성남 등 5명과 러시아혁명세력과 손을 잡자고 의기투합하여 연해주로 넘어갔다. 이들은 당시 중국과의 국경지대인 추풍지방의 당어재골에 살고 있는 최의관 집으로 갔다. 황운정은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황운정 선생은 2019년 문재인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시 국내로 그의 유해가 봉환되어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본래 최의관은 독립운동에 유력한 사람으로... 조선에서 무신년 [1908년]부터 의병으로 활동한 사람이며 혁명자 가정이었다. 그는 두 아들이 있는데 다수파[불췌비키] 당원들이었다. 장자는 최형식 차자는 최찬식이었다. 우리 여섯 명은 처음으로 최의관의 집에서 다수파(불췌비키) 당원 류진구 동무를 대면하여 실상 진구 동무에게서 공산당 강령을 처음 듣게 되고...

이 회상기에서 알 수 있는바 당어재골(신길동) 최병준의 집이 당시 항일혁명가들이 자주 찾고 모여서 함께 일을 도모했던 근거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병준의 항일활동

함흥경찰서장 대리 경부(茂義孫)가 1908년 7월말 내부(內部) 경무국장(松井茂)에게 발송한 보고서에 “훈춘(琿春) 부근 일대의 적(賊)의

두목 최병준이 지난 9일[7월 9일] 신아산(新阿山) 습격에 참가한 후 곧바로 훈춘으로 귀래(歸來)하여 모병(募兵)한 1천 5백명 외에 계속 열심히 모병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병준이 1908년 연해주 연추(煙秋)에 본부를 두었던 동의회(同義會) 의병부대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국내진공작전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 경찰은 최병준이 당시 동의회 총장인 최재형과 가까웠던 안중근과 달리 이범윤측 소속이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항일혁명가 최호림은 1932년에 쓴 『원동 변경 고려인 생활 역사초록』에서 동의회를 좌우파로 구분하고 최병준을 안중근, 장봉한, 황병길, 장봉한, 엄인섭(이후 협잡꾼, 일본정탐으로 전락)과 더불어, 최재형을 ‘주석’으로 하는 ‘좌파’의 중요 인물로 분류하였다. 이범윤을 주석으로 하는 ‘우파’에는 조맹선, 조순서, 장봉금 등이 소속되었다. 최호림은 최병준을 ‘유수한 보황당파’라고 규정했다.([항일혁명가 최호림과 러시아지역 독립운동의 역사], 한울아카데미, 2010, 48쪽)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오 히로부미를 처단하자, 일제는 11월 2일 서울 주둔 헌병대 소속 헌병 중위(杉山舞)를 여순(旅順)으로 급파했다. 그의 업무는 하얼빈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심문이 시작되면서 심문을 담당할 “검찰관에게 배일적 인물들의 계통 등에 대하여 참고가 될 재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일본 헌병이 여순 체재 중에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재노령(在露領) 배일당(排日黨)의 110여 명의 명단에 최병준이 포함되어 있다.(그의 이름은 ‘崔秉俊’과 ‘崔丙俊’으로 두 번 기재되어 있다.) 최병준이 일제 관계자들에게 이미 연해주의 이름난 ‘배일인사’로 파악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안중근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당시 부상을 입은 하얼빈 주재 일본총영사(川上總領事)가 외무대신(小村)과 조선통감(曾禰)에게 보낸 11월 5일자 전보 「안중근 및 공모혐의자에 대한 신문에 관한 건」에 기재된바, 그의 이름은 홍범도, 최재형, 유인석, 이범윤 등 60여 명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면 폭도인’ 명단에 ‘최의관(崔議官)’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기록에서도 당시 최병준이 그의 과거 직책이었던 중추원 의관(議官)으로 불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일제 첩보보고서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최병준이 1909년 3월 이범윤과 관계를 단절하였다고 한다. 이범윤과 분리할 당시에 최병준 휘하에는 의병 1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얼마후 최병준은 홍범도 진영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홍범도는 1910년 3월 국내진공작전에서 홀로 살아남아 연해주로 귀환한 이후 다시 의병모집에 나섰다. 그리하여 국망이후 1910년 말에는 휘하에 70여 명에 달하는 의병과 군자금 3천원을 모집해 놓고 있었다. 홍범도는 “이런 상태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니 생활이 어려운 부하들에게 군자금을 분배하여 주자”는 엄인섭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안중근의 하얼빈의거후 일본의 고등 밀정으로 전락한 엄인섭이 이 당시에 포섭되어 있었는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리하여 홍범도는 엄인섭에게 1천원을 주어 녹둔(鹿屯), 연추 하센마거우(哈什蟆溝) 등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홍범도는 또한 당시 훈춘현 신풍촌(新豐村)에 거주하고 있던 최병준과 장두한에게 2천원을 주어 의식이 궁한 상태에 빠져 있던 부하 20여 명의 편의를 봐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최병준은 1911년 3월 훈춘현 태평구(太平溝)로 이주하여 장두한과 더불어 60일경(1日耕은 소가 하루 갈수 있는 면적)의 토지와 빈집들을 구매하였다.

이때로부터 최병준은 1915년까지 태평구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대리(野村基信)가 외무대신(加藤高明)에게 보낸 보고서(1915년 3월 25일자)에 따르면, 최병준은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하여 러일전쟁과 중일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부응하여 독립전쟁을 계획하고 있던 이동휘, 이종호 등과 연락하고 있었다. 일제측은 이동휘, 이종호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 인물로 태평구 방면의 최병준, 조행식 외에도 블라디보스토크의 김태봉, 김도여(김병검), 함동철 등, 훈춘의 백규삼, 황병길, 간도 국자거(局子街)의 김립, 도성, 김하석 등을 거론하였다.

최병준은 늦어도 1916년초 추풍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측이 작성한 보고서(1916년 3월 13일자)에는 당시 훈춘지방에 조직되어 있던 ‘기독교우회’라는 한인단체의 역원(간부)들의 명부와 상세한 신상정보가 첨부되어 있는데, 황병길, 이명순, 백규삼, 이흥삼, 김동한(1920년대 후반 친일화), 임국정, 한형권(1930년대 후반 친일화), 윤동철, 양하구, 김도여, 문병호, 오창환, 한경서, 최성삼, 김희영 등 항일민족운동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던 인물들이 대거 망라되어 있다. 이 명부에 따르면 최병준이 교제과(交際課)의 전임(前任) 과원이었으며, 현주소는 니콜스키[당시 지명은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오늘날의 우수리스크]로 되어있다. 최병준이 1916년 3월 이전에 이미

연해주 추풍의 니콜스크-우수리스크(소왕령)으로 이주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1세, 원적은 영원진(永遠鎭)으로 나와 있다.(‘永遠鎭’이 평남에 위치한 ‘寧遠鎭’을 오기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홍범도 장군의 총과 탄약 보관

1914년 8월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러시아와 일본이 명실상부한 동맹국이 되면서 러시아당국은 일본의 외교적 압력을 받아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홍범도 역시 이전에 갔던 아무르강 연안 지역으로 숨어들었다. 아무르강 하구 니항(미갈래) 부근의 어장에서 ‘어장꾼’으로 1년을 일하고, 꾸로바트, 통구쓰크, 비안코, 안드리쓰크 등 아무르강 연안의 금광들을 돌아다니며 ‘금전꾼’으로 막일을 했다.

홍범도는 이렇게 막노동으로 모은 3,050원을 모아 이만(현재의 달네레츨스크)으로 나왔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여 이제는 원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홍범도는 이만에서 총 17정과 탄환 1,700발을 구입하고 의병을 모집하였다. 홍범도는 자신의 『일지』에 “오연발 한 개에 탄환 100개씩 끼워 9원씩 주고 사서 중국놈에게서도 사고 고려놈에게서도 사고 러시아(놈)에게서도 사서 의병을 모집하였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나 국제적 상황은 홍범도의 기대와 달리 악화되고 있었다. 1915년 8월 일본 외무상 모토노 타로(本野太郎)가 러시아정부에게 항일 지도자 28명의 명단이 첨부된 메모를 보냈던 것이다. 이 명단에는 당시 러시아원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동휘, 최재형, 이상설, 계봉우, 이종호, 이상설, 허근, 이범윤 등과 함께 홍범도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을 체포하여 일본당국에 넘기거나(여호인의 경우), 시베리아의 오지로 추방해줄 것(원호인의 경우)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홍범도는 의병들과 함께 이만을 떠나 우수리강을 건너 봉산(蜂窩山)으로 들어갔다. 1915년 7월 26일(음력) [양력 9월 5일]의 일이었다. 봉밀산은 항카호(興凱湖) 부근의 산이름이나, 한인들은 ‘밀산(密山)’ 일대를 ‘봉밀산’이라고 했다. 밀산은 연해주 이만에서 보면 우수리강 맞은편에 위치한 지역이다. 홍범도는 밀산에서 지낸 2년 반을 보낸 후 밀산을 떠나 추풍 당어재골(신길동)의 최병준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1918년 3월경이었다. 홍범도는 밀산으로 들어가며 가져갔던 총을 밤을 이용하여 추풍 당어재골(다야재골)의 최병준 집으로 운반하여 땅에 묻어 놓았다. 땅에 묻었던 총을 끄집어 내고 다시 무장투쟁에 나선 것은 1919년 3·1운동후의 일이다. 홍범도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자신의 『일지』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1915년부터 산저장늑(山猪獐鹿. 멧돼지와 노루,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하여 햇수로 이태 반을 사영(사냥)하다가 그 총

을 밤으로 운반하여 추풍 당어재 골치기(골짜기) 최의관 최병준 집에다 묻어 놓고 농사를 시작하여 한해 농사짓고 18년 전 고려 독립만세가 불 일 듯함으로 농사고 뛰고 나가자 하고 묻어 두었던 총을 끄집어 내어 일변 닦으며 일변 의병모집과 탄환 모집과 일변 원조하여 의병들 입힐 것과 천리경 그러한 것을 갖추다나니...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와 접제원 최병준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이인섭의 회상기에 기록된바 주목할 내용이 있다. 1918년 10월 말 한인사회당의 핵심간부인 이동휘, 김립, 이인섭 세 사람은 하바롭스크로부터 니콜스크-우수리스크로 도피해 와 있었다. 1918년 8월 러시아 원동지역에 출병한 일본군 헌병대 본대가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 주둔하고 있었고, 서북방의 한인 마을인 푸칠로프카(육성촌)에는 일본수비대 본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는 백위파 군대와 1918년 6월의 한인대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선언한 전로한족중앙총회가 공개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군과 백위파의 추적을 받고 있던 이들 세 사람은 니콜스크-우수리스크 동쪽에 위치한 한인 마을에서 회합을 갖고 혁명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들이 계획한 혁명사업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수이푼 신길동(술발관) 최의관(최병준) 집에 머물고 있는 홍범도를 지도자로 하는 의병대(빨치산대)를 조직하기로 한 계획이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들은 당시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지역 한인사회 지도자들이던 최재형, 김이직, 엄주필 등을 비밀리에 만나 군량, 의복, 신발, 무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의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승낙을 받았다. 한편 이들은 공산주의 이론가이자 활동가인 이해사(유진구)를 수이푼 신길동의 최추송에게 파견하여 빨치산을 조직케 했다. 이에 따라 4월참변 후인 1920년 여름 후일 조직된 의병대(빨치산부대)가 술발관군대이다. 니콜스크-우수리스크의 건재악국 덕창국 주임이었던 김이직은 수이푼 술발관 군대에 식료, 의복, 신발, 나아가서는 무기까지 공급했다. 이러한 사정에서 일본헌병대가 최재형, 김이직, 엄주필을 체포하여 학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

역사가이자 항일혁명가인 계봉우는 상하이에서 북간도 파견 임시의 정원 의원으로 활약하며 『독립신문』(1920년 4월 8일자 3면)에 기고한 「아령실기(俄領實記, (12회)의 ‘독립운동’ 항목에서에서 다음과 같이 써놓았다.(계봉우 선생은 2019년 문재인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시 국내로 그의 유해가 봉환되어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군사상으로 논하면 국민의회의 기관으로 선전부(宣戰部. 후에 군무부로改함)를 치(置)하고 그 부장은 이동휘씨가 되야 추풍 다야재골[당어재골]을 근거지로 하고 군인을 모집할새 일 즉 나자구(羅子溝)에서 사관교육을 수(受)하든 학생 일동

과 그 나마 홍범도씨의 부하와 황병길 황병길(黃炳吉), 이명순(李明淳), 최경천(崔敬天) 제씨의 솔래(率來)한 군인을 합동하여 대오를 편성하매 지휘관은 이용(李鏞)씨오 접제원은 최병준(崔丙俊) 최창준(崔昌俊) 황원오(黃元伍) 제씨오 군자금 모집에는 오주혁(吳周爌) 박군천(朴君天) 양씨오 주계(主計)에는 김립(金立), 이중집(李仲執) 양씨이었다.

계봉우는 이동휘가 대한국민의회의 선전부장으로서 군대를 조직하였다고 하지만, 후일 이동휘는 대한국민의회의 선전부장 선임을 받아 들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1916년부터 1919년까지 밀산에서 홍범도와 함께 활동했던 정태는 이동휘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군정부’(軍政府 또는 獨立軍府)가 조직되었고 홍범도에게 ‘독립군 총사령관’으로서 북간도로 가서 독립군을 지휘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회상하였다.

간도15만원사건 주역들, 최병준 집에 머물던 홍범도장군 방문

일본헌병대의 체포를 피해 가까스로 살아남은 15만원 사건(1920.1.4.)의 주역 최봉설(최계립)은 사건 수개월 전인 1919년 여름 당어재골에 머물고 있던 홍범도를 찾아간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다. 최봉설(최계립) 등 철혈광복단 단원 12명은 1919년 여름 대한민국 민의회 군무부장 김하석의 주선으로 동중철도 수비대(백위파 호르바트 군대)에 입대했다가 고역(苦役)뿐인 군대 생활로부터 탈출한 청년

들이었다. 이들은 홍범도 장군을 찾아보기로 의견을 모은 후, 추풍 당어재골 최의관 집에 머물고 있던 홍범도 장군을 만났다. 당시 홍범도는 “아무 일도 없이 시세에 맞추어 한번 일떠서야 하겠는데 어쩔 셈인지 근심 중”에 있었다고 한다.

최봉설 일행은 “선생님 별 것 없이 혼자라도 북(北)하마탕에 가십시다. 우리 간도 청년들이 모두 담당할 터이니 근심마십시오. 군인들이며 총이며 피복이며 모도 근심 말고 선생이 오기만 하면 조선독립은 다 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오십시오.” 주인 최병준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일행을 접대하였다. 일행은 홍범도 장군과 용정의 일본은행을 털 것을 약속하였다.

며칠을 지내는데 최의관은 이들에게 “여기 지금 약담배(아편) 철이 되며 약담배를 하여 가지고 간도로 나갈 것”을 권유하였다. 최봉설 일행은 이튿날부터 담배일을 2주일여를 일하고 보니 돈이 단포 하나씩 사고 집으로 돌아갈 여비가 되었다고 한다. 일이 잘되어 이들은 홍범도 장군과 모든 약조를 하고 당어재골을 떠났다. 이들은 소왕령(우수리스크)에 와서 의복을 사입고 해상위로 가서 장기영을 만나 단포를 준비하고 간도로 나가 일본은행 15만원을 탈취하는데 성공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들은 탈취한 자금을 소지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 잠입하여 무기구입을 모색하던 중, 러시아혁명군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하던 1월 31일 새벽에 엄인섭 등 밀정의 밀고를 받은 일본헌병대에 체포되어 비운을 맞이하고 말았다.



추풍 당어재골의 최병준 집에서 홍범도를 찾아갔던 간도 15만원 사건의 주역 최봉설(최계립, 왼쪽)과 임국정. 1919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연재 4

항일무장투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1919 - 1920

공회정 작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군단들은 대규모 국내 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연합전선 구축이 필요했지만 각자의 전략이 달랐던 군단간의 통일은 쉽지 않았다. 1920년 5월,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이 지휘하는 대한군무도독부, 안무가 이끄는 국민회군이 순차적으로 연합하며 대한북로독군부(大韓北露督軍府)이 결성되었다. 부장 최진동, 부관 안무, 북로정일제1군사령부 부장 홍범도로 편성하고, 전군 지휘는 홍범도 장군이 맡았다. 전열을 정비한 독립군 연합부대는 수시로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다.

독립전쟁의 첫 승리,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의 시작은 그리 크지 않았다. 1919년 6월 4일 삼둔자 마을에 은거해 있던 독립군이 일본군 초소를 급습하고 쫓아오는 일본군을 전멸시켰다. 일본은 두만강을 수비하던 부대로 월강추격대대(越江追擊大隊)를 편성하여 6월 7일 독립군을 공격해 왔다. 일본군의 전략을 예상했던 독립연합군은 봉오동 주민을 피신시키고 험준한 사방 고지에 독립군 각 중대를 매복, 배치시켰다.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거침없이 공격해 왔지만 독립연합군 포위망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독안에 든 쥐였다. 갑작스런 공격에 혼비백산한 일본군, 어디를 둘러보아도 독립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날아오는 총알에 그들은 낙엽처럼 쓰러졌다. 3시간의 총격전,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군은 서둘러 후퇴했다.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의 지휘 아래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 1개 대대를 섬멸시킨 전투로 독립전쟁의 첫 승리였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안무의 국민회의, 최진동의 군무도독부의 삼단연합이 주축이 되어 이뤄낸 쾌거였다. 또한 독립군단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전선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가들에게 희망의 정표가 되었다.

항일독립투쟁의 금자탑,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후 항일 투쟁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달랐던 북간도 지역 독립군단들은 군단별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8월 하순경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은 새로운 항전지지를 향해 떠나 화룡현 이도구 어랑촌에 도착했다. 대한민국군, 대한의군부, 대한신민단, 대한광복군 등도 이곳으로 모여들면서 병력은 1,200여명에 이르렀다. 10월 13일 이도구 복합마당에서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北路軍政署軍) 등 이곳에 모인 독립군단 대표들은 홍범도 장군의 지휘하에 군사를 통일하고 전쟁을 수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독립군단이 전열을 정비하고 있을 때, 일본군은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계획’을 확정하고, 10월 훈춘사건으로 일본군의 만주 진군 빌미를 만들어냈다. 국경을 넘은 일본군은 10월 20일을 기해 독립군을 섬멸하고 독립군 근거지를 모두 파괴시킨다는 목표 아래 2만여명의 군인을 이끌고 간도로 공격해 왔다.

10월 21일 일본군의 도발로 시작된 청산리 대첩은 26일까지 청산리 일대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전투로 이어졌다. 그 시작은 백운평(白雲坪) 전투였다.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은 지형지물을 이용한 매복전으로 일본군 전위부대를 전멸시켰다. 승전 소식에 사기가 총전된 독립군. 같은 날 홍범도 장군의 연합부대는 완루구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산악 전투의 맹장인 홍범도 장군답게 뛰어난 매복 작전으로 적을 섬멸해나갔다. 총격전은 치열했고, 다급해진 일본군은 불을 지르고 기관총과 야포까지 쏘아댔지만 홍범도 장군의 허를 찌르는 작전 덕분에 사방 분간도 하지 못한 채 허방지방 몰려다니기만 했다.

어랑촌 전투는 청산리 대첩 중 가장 큰 전투였다. 일본군 5천여명을 상대로 김좌진 장군 부대가 접전을 벌였으나 이틀간 이어진 전투로 전세가 기울어가고 있을 때 홍범도 장군의 연합부대가 합세하면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뛰어난 전세 판단력이 이룬 큰 성과였다.

이외 천수평 전투, 명개골 전투에서 고통하 전투까지 홍범도 장군의 연합독립군과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이 단독 또는 연합으로 전투를 연이은 승리로 이끌었다. 지형지물을 활용한 전략전술과 유격전, 지역 동포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항일 무장독립투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를 낸 청산리대첩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신민단군대, 한민회군대 등과 연합부대를 이뤄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함께 이룬 승리였다.

봉오동 전투와 함께 대외적으로 한민족의 위상을 확인시켜주었고, 독립 쟁취를 향해 굽히지 않는 국민적 자존과 결기를 보여준 전투였다. 이 전투를 이끈 주역 중 한 사람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다. ㉔

‘자총(自銃)’하여 홍용환의 목숨을 구한 최병준

망명이후 둘째 아들 용환을 맡아 키운 홍범도의 의병 동지 최병준에 관한 가슴 아픈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 일화는 1920년 4월참변 후 최병준의 두 아들 최형식, 최찬식과 함께 ‘솔밭관 군대’에서 활동한 바 있는 이범진이 남긴 회상기를 통해 알려진 이야기이다. 1919년 가을 최봉설 일행이 당어재골을 다녀간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다.

당시 연해주의 한인들이 러시아혁명파(붉은 파)와 같이 군대를 조직하여 가지고 일본군과 전쟁하고 추풍 당어재골에 있던 홍범도 역시 의병을 모집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이범진은 당시 수이푼(추풍) 구역 당어재골의 신길동에서 소작농을 하며 생활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었다. 그 동리에는 최의관이라는 “늙은 조선 민족혁명자가 계시고, 최추송이라는 영리하고 혁혁한 혁명적 의기를 가진 대표적 인물인 청년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얼굴을 아지 못하는 수상한 조선인 두 사람이 그 촌 근방에서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홍이완(홍범도의 아들)과 최찬식(최의관의 아들)이 발견하고 일탐(일본밀정)이라고 짐작하고 암살하였다. 그 후 자피거우 앵데기에 근거를 두고 무장한 독립군(이범윤의 관리사 군대)에서 암살당한 두 사람이 자기 부대원이라고 하고 홍이완과 최찬식을 체포하여 사형한다고 위협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찬식의 부친 최의관은 관리사 군대 사람들을 청하여 놓고서 말하기를, “두 사람을 암살한 것은 내가 그들 행동이 수상하니 일탐(日探)으로 알고 처단하라고 명령하여 죽였으니 내 과실이 지 홍이완이와 최찬식이게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계속하여 말하기를, “나는 늙은 혁명자로서 젊은 혁명자 두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죽어야 상당하다”고 선언하고 가지고 있던 단총으로 자살하고 말았다.

그러나 의군부 군인들은 최창식과 홍이완(용환)을 체포하여 가지고 앵데기로 갔다가 그들을 무죄하다고 놓아서 신길동으로 돌아왔다. 관리사 군대 대원들은 신길동 최찬식 집에 달려들어 최병준의 며느리를 구타하고 찬식과 용환을 내놓으라고 강박하였고, 나중에는 피살된 두 사람의 시체를 내어 놓으라고 만행을 하는 바람에 찬식과 용환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가슴아픈 일화와 더불어 최병준은 홍범도가 가장 신뢰했던 진실한 애국자로서 오랫동안 기억되었다.

항일혁명가로 활약하게 되는 두 아들, 최형식과 최찬식

1920년 6월 5일 최병준의 큰 아들 최형식의 집에서 추풍지역 솔밭관 한족공산당의 첫 항일무장대인 ‘우리동무군’이 처음으로 창설되었다. 최찬식, 황원호, 최추송(최문서), 이근선 등 14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동무군’은 이전에 솔밭관에 조직되어 있던 지방대 조직인 ‘신길동청년회’ 73명을 근간으로 하였다. 이범진의 회상기에 따르면, 지방대 역시 최찬식 집에서 최형식, 최찬식, 최추송, 송창수, 노재선, 황원호, 이범진 7명이 모여서 조직했는데, 이들은 그 지방에 살던 여호인 소작인

들이었다고 한다. 지방대의 첫 대장이 최추송이었다.

지방대에 이어 개편된 ‘우리동무군’의 대장은 김동한이었고, 중대장은 최형식, 소대장은 오병렬과 노재선이었다. 이후 최형식 집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단순한 독립운동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러시아공산당과 공명하는 것이 세력확장에 유리하다고 결론짓고 연해주한족공산당(이후 연해주고려공산당으로 개칭)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8월 15일 13개 지방대표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당어재골 금풍동에 서 개최된 대회에서 선출된 당간부에는 최형식, 최찬식 형제를 비롯하여 이중집, 이영호, 유진구, 최추송, 황원호 등 7명이 선출되고, 최찬식은 5명으로 구성된 군정의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 외 위원은 최추송, 이중집, 이영호, 김동한이었다.

최형식은 ‘우리동무군’이 ‘공산주의군’으로 개칭한 후 제1기에도 중대장을 맡았다. 당시 간부는 사령관 최추송, 대대장 허승환, 중대장 이광우, 최형식이었다. 원동해방전쟁의 말기인 1922년 여름 추풍지역의 연해주고려공산당(솔밭관 공산당)이 러시아공산당 포시예트-훈춘 구역 간부로 개편되자, 최찬식은 조직과장으로서 책임비서 최호림, 통계과장 최성삼과 함께 활동했다.

김동한이 소련 국가정치부(게페우)에 구금된 후 “위험인물의 혐의”로 추방처분을 받아 일본총영사관에 넘겨진 1925년 6월말 7월초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최찬식은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공산학교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다. 최찬식은 공산학교 졸업 후 1926년에 중국과의 국경지역인 그로데고보 구역에 파견되어 조선촌에서 문맹퇴치 사업을 지도하다가 병으로 사망하였다. 그의 시체는 그로데고보 연병장 한 곳에 있는 혁명자들을 위한 공동무덤에 안장되었고 그곳에는 혁명자들을 기리는 기념탑이 건립되었다.

중국 북만주와 러시아 연해주 사이의 산간지대에 자리잡고 있었던 추풍 당어재골 최병준의 집은 홍범도가 농사를 지으며 때를 기다리다가 3·1운동이후에 대한독립군 조직에 나섰던 곳이다. 그의 사후 두 아들은 1920년 여름 이후 1922년말까지 이른바 ‘원동해방전쟁’에서 크게 기여한 연해주 솔밭관군대의 핵심인물이었다. 최병준은 홍범도가 둘째 아들 용환을 맡기고 자신도 편히 쉴 수 있었던 가장 신뢰했던 동지였다. 그의 보호와 배려 속에서 자라난 홍용환, 최형식, 최찬식, 세 젊은이는 열성적인 애국청년으로 성장하여 1920년대 연해주와 북간도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전선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민족영웅 홍범도 장군의 찬란한 항일투쟁의 역사와 더불어 그의 가장 충실했던 동지 최병준 선생의 희생과 삶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㉓

홍범도장군 <네이밍 디자인> 국민공모전

공모전 목적 _ 다양한 계층의 국민적 관심 유도 및 홍범도장군 인지도 확산 계기 마련

100년 전 대한의 이름으로 거둔 독립전쟁 첫 승리 봉오동전투와 그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끈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을 생각해 보며, 국민의 마음이 담긴 작지만 뜻깊은 선물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드리는 기회를 마련

공모전 기본개요 _

- 공모명칭 : 홍범도장군 <네이밍디자인> 국민공모전
- 홍범도장군 관련 키워드로 <네이밍 로고 디자인> 및 <국민서명 디자인> 공모 - 2개부문
- 부문별 대상(국가보훈처 장관상) 각 1, 최우수상 각 1, 우수상 각 2 - 총 8개 작품
- 공모 기간 : 2020.8.17.~2020.9.28 - 43일

공모전 응모 현황 및 심사 _ • 공모전 참여 홍보 추진 - 포스터 발송 및 주요사이트 참여 홍보(총 903곳)

- 공모전 포스터 및 참여 협조요청 공문 발송 : 827곳 (포스터 각 2부)
- 특성화 고등학교 : 487곳 / 디자인 관련 대학교 : 225곳 / 평생교육원 : 115곳
- 디자인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39곳, 대학생 공모전 사이트 23곳
- 디자인 관련 협회 14곳 : 한국시각디자인 협회, 캐릭터디자인협회, 캘리그래피협회 등

• 공모작품 접수 현황 - 총 210건 (네이밍 디자인 137건 / 국민서명 73건)

- 공모전 홈페이지 방문자 2,348건 : 공모전 취지 및 세부내용 검색 등, 적극 참여자
- 공모전 포털사이트(쌍굿) 조회자 5,558건 : 공모전 게시 사이트의 기본내용 검색 및 관심참여자

• 심사 진행 일정

- 2020.09.28.(월) 18:00 : 공모전 마감 - 접수프로토콜 중지, 홈페이지는 운영
- 2020.10.07~10.13 : 응모작 210건에 대한 예비심사 진행
- 2020.10.16.(금) 16:00 : 최종 본심사 - 전체 위원 결선 심사
- 2020.10.19.~10.22 : 시상식 전, 선정 작품에 대한 응모자 본인 및 직접제작 여부 확인 작업

• 시상식 진행

- 일시 : 2020.10.23.(금) 13:00 - 홍범도 장군 순국77주기 추모식 프로그램으로 편성
- 장소 : 국립서울현충원 충열대

- 봉오동·청산리 전투 전승 기념식, 추모식, 학술제 등 주요 행사 무대 및 조형물 이용
- 기념사업회 홍보 및 인쇄물에 인쇄 (리플렛, 소식지, 자료집, 도서 등 출판)
- 기념사업 후원기업 이용, 기념사업회 수익사업 등

향후 계획 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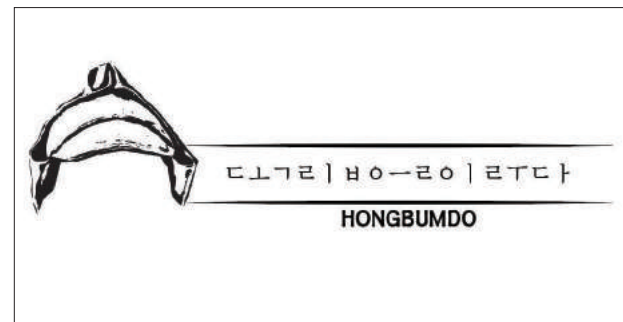
| 네이밍 로고 디자인부문 |



대상 _ 오세웅(원주시)



| 최우수상 _ 최정현(서울) |



| 우수상 _ 홍성호(서울) |



| 우수상 _ 이경란(거제시) |

| 국민서명 캘리 디자인부 |



| 대상 _ 이은희(대전시) |



| 최우수상 _ 장윤희(고양시) |



| 우수상 _ 김은정(파주시) |



| 우수상 _ 김희정(서울) |

10.14 육군사관학교 _총무관 강당

- 환영사 _ 정진경 학교장 •축사 _ 이종찬 명예이사장 •집필 과정 설명 _ 송은일 작가
- 북 토크 _ 최광임 시인, 송은일 작가, 학생대표 2
- 참석 : 3, 4 학년 생도 80명, 황원섭 부이사장, 박석봉 이사, 김현식 사무국장



11.11 국군간호사관학교 _ 학교본부 명예실

- 환영사 _ 정의숙 학교장 •영상 축사 _ 우원식 이사장 •축하 인사 _ 황원섭 부이사장 •강연 _ 송은일 작가
- 작가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_ 간호사관 생도
- 참석 : 2학년 생도 60명, 황원섭 부이사장, 박석봉, 김우진 이사, 한동건 사무총장, 김현식 사무국장



간호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북 콘서트 인사말

황원섭 부이사장

금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1920년,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홍범도 장군이 주도하는 독립군연합부대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세계 최강 일본 정규군과 싸워 승리한 지 100주년이 됐습니 다. 당시 양대 전투에서 승리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자주독립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고, 독립군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독립전쟁 전승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홍범도장군의 애국정신을 대중화하려고 송은일 작가의 도움으로 소설 '나는 홍범도'를 출간했습니다. 사관학교를 순회하며 소개하던 중에 지난 달 육군 사관학교에 이어, 오늘 간호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국군 의료체제의 핵심이 될 사관생도 여러분!

홍범도 장군은 항일 의병투쟁과 독립전쟁의 최고의 영웅입니다. 홍 장군은 1883년 15세 때 평양진위대 나팔수로 근무한 이래 투철한 애국심 과 정의감이 충만한 의로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과 비리로 가득한 상관을 응징하고 군문을 떠납니다. 종이공장의 종업원으로 일할 때도 임금을 주지 않고 취악한 주인을 응징했던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과 비리를 응징하는 정신으로 일제와 싸우는 의병을 주도했고, 독립군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홍범도 정신의 밑바닥에는 정의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도 여러분이 “나는 홍범도”를 읽게 되면, 홍 장군의 롤 모델이 과연 누가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홍범도는 22세 때 금강산 신계사에 들어가 지담 스님의 상좌(행자승)로 불도에 입문합니다. 지담 스님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로, 홍 장군에게 임진왜란의 역사와, 의병으로 활동한 승병들의 전술과 전략을 상세 하게 지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10년 이상을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에 종사하면서 이순신과 홍범도 장군의 유사점을 찾아내고, 홍범도 장군의 롤 모델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의병과 독립군 활동은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정신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전투에서 적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활동도 두 분 이 똑 같습니다. 싸움터에서는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하는 것도 닮았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전투에서 일본군 월강부대를 봉오동으로 유인하여 유리한 지형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격파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에서 일본군을 울돌목으로 유인하여 빠른 조수를 이용하여 일본군을 대파시킵니다. 이순신 장군도, 홍범도 장군도 전투에서는 백전백승하는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생도 여러분! 홍범도 장군을 민중들은 “나르는 홍범도”라고 불렀습니다. 뛰어난 전략 전술뿐 아니라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리더십 때문입니다. 독립군 부대들이 연합할 때, 자신의 권위와 전투 경험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치켜세워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부하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적이고 인간적인 리더십 을 가진 분입니다.

오늘 홍범도 장군에 대한 강연을 계기로 홍범도의 독립운동과 더불어 군인 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지휘 철학을 배우고, 소설을 읽어, 소설 같은 삶을 살아가신 홍범도의 진면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조선을 지키는 우리, 끝끝내 이긴다!

(소설 '나는 홍범도 감상문')

조성은 국군간호사관학교 2학년 생도

조선을 지키는 우리, 끝끝내 이긴다! 「나는 홍범도」를 읽는 내내 마음속 깊숙이 박혀 있던 문장이다. 책의 초반부에 홍범도와 김수협이 의를 맺을 때 나오는 구절인데, 이 책을 단 한 마디로 설명하라면 단연 이 문장을 꼽을 수 있겠다. 「나는 홍범도」는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맞아 쓰인 무장독립투쟁의 상징적 인물인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로, 군인으로서의 홍범도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홍범도를 만나 볼 기회를 마련해 준다. 그동안 교과서 속에서 무장독립투쟁을 이끈 장군의 모습으로만 홍범도를 마주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 홍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 삶의 프레임 하나하나가 홍범도의 결정과 신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먹패장골의 홍범도 장군을 시작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홍범도 장군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화상의 방식으로 중간중간 보여 준다. 홍범도 장군은 1868년 지금의 평양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다. 어머니는 홍범도를 낳자마자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범도가 아홉 살이 되던 해 절벽에서 발을 헛디뎈 세상을 뜨고 만다. 어린 나이에 생존이라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된 범도는 여러 곳을 전전하게 된다. 나팔수로 군 생활을 하던 중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하였다가 사형당할 고비를 넘기고, 제지공장에서는 임금을 제때 주지 않자 이에 항의하다가 사람을 실수로 죽이고 떠나기도 한다. 그 뒤 절에 승려로 들어가 여천이라는 호를 얻고, 평생을 바쳐 사랑할 아내도 이때 만나게 된다. 승려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모지 스님(이옥영)과 홍범도는 길을 나서던 중 괴한들에 의해 이옥영이 납치당하면서 헤어지고 만다. 이후 범도의 의병 진지가 되기도 하는 먹패장골에서 심 포수를 모시고 살다가 심 포수가 죽은 이후 곳곳에 출몰한다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다시 홀로 길을 나서고, 산자락에서 김수협을 만나 의병 활동을 결심한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한 의병 활동이 여러 전설적인 업적을 이루며 점차 성장하자, 제천 호작의진에 합류하기도 하지만, 이념 갈등으로 인해 다시 독립적인 부대를 이끌어 가게 된다. 우연한 계기로 헤어졌던 아내와 큰아들을 만나 가정생활을 하던 중 일제의 부조리함을 실감하고 다시 봉기하게 되지만, 이를 방해하려는 일제의 방해 공작으로 아내와 큰아들을 모두 잃고 만다. 슬퍼할 틈도 없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압록강을 건너 대한독립군을 창설한 홍범도 장군은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다. 석 달이 지난 뒤,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와 연합하여 또 한 번 무장독립투쟁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청산리 전투를 전개하는 장면과 함께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작가의 말에서 송은일 작가는 실존 인물을 등장시키는 소설을 쓸 때는 개연성과 이야기를 마련하기 위해 각색을 하기 마련인데, 홍범도 장군의 일생은 너무나도 극적이라 따로 각색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했

다. 이처럼 여천 홍범도의 생은 때때로 아주 극적이며 찬란했지만, 그 사이사이를 동여매고 있는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이야기여서 읽는 내내 몇 차례고 가슴이 뭉클했다. 특히나 두 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도들과 함께 북 콘서트에 참여하면서 이어지는 질의응답과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홍범도라는 사람으로부터, 그의 삶으로부터 제법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또한, 짧게나마 북 콘서트 발표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해 나가며 이 책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가치를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전장에서 날아다녔던 '나는' 홍범도, 그리고 1인칭 대명사인 '나'는 홍범도. 중의적 의미를 품은 책 제목에서, '나'는 홍범도 대신 '우리'는 홍범도라는 감상을 생도들과 나눌 수 있었다. 나아가 사관생도에게 강조되는 덕목인 그 누구보다 앞장서 훈련에 임했던 홍범도 장군의 숭선수범 정신, 어려움을 이겨낸 그의 정신력을 함께 책을 읽음으로써 나눌 수 있어 너무나도 벅차오르는 시간이었다.

「나는 홍범도」를 읽으며, 저절로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홍범도 장군은 수많은 전투를 거치면서 많은 동료를 잃고 수없이 상처를 입었지만, 그가 의병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이념도, 어떠한 굳은 목표도, 다른 무엇도 아닌 '나의 땅, 나의 국가'이다. 말 그대로 나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제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가 새로이 위협받고 있어 위국헌신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장차 군인으로 살아갈 사관생도의 입장으로 읽어 본 「나는 홍범도」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끝끝내 이길 것이란 확신을 심어 주었다. 만약, 홍범도 장군이 우리 사관생도들을 직접 만난다면 어떤 말을 가장 전하고 싶을까? 나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한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위국과 구국을 실천하는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결국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니,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영웅은 난세에 나타난다는 옛말이 있다. 이 말은 영웅이 난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난세에 위기를 마주했을 때, 어떤 큰 결심을 통해 스스로 영웅이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홍범도 장군이 살던 시대에도 그랬지만, 어떤 시대든 난세는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다. 홍범도 장군을 존경하고, 멋있다고 칭송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또한 난세에 영웅이 될 사람이라 스스로 생각하며 홍범도 장군의 기개를 닮아 보고자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 소중한 무언가를 위해 언제든 몸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는 이미 영웅이다. ❸

어르신 유감

김용환 한남대 명예교수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65세가 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발급되며, 독감 예방주사도 무료로 접종하도록 안내문이 꼬박꼬박 배달이 된다. '지공선사(지하철 공짜로 타고, 경로석에서 참선하듯 눈 감고 앉아 있는 노인들)'라는 품격 있는(?) 호칭은 노인들이 자기 위안 삼아 스스로 붙인 호칭이라면, '어르신'이라는 호칭은 사회가 붙여준 호칭에 가깝다. 내가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종종 누가 그렇게라도 부르면 답살이 뜬다. 난 아직 어르신이 못되며, 또 어르신 대접 받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호칭이 좋으냐고 묻는다면 난 그냥 아저씨나 할아버지로 불리면 좋겠다. 아저씨, 아주머니, 이모처럼 타인을 부를 때 많이 쓰는 인척 호칭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다. 아들 뻔인 사람이라면 아저씨, 손자뻔이면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반가울 것 같다. 이런 호칭이 파편화 된 우리 사회에서 가족 공동체 같은 친밀감을 더 드러내기 때문이다.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그냥 싫은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 하나는 내가 어르신다운 어르신이 되지 못하는데 그렇게 불러주니 부담이 가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어르신이라 불러놓고 화성인 취급하는 불편한 경험들 때문이다. 뒤의 이유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우리 사회가 조금 품위 있게 변하기를 기대할 뿐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어르신다운 어르신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끈대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끈대가 되지 않기 위한 나의 세 가지 다짐'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년퇴직 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맞는 말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첫째, 나는 젊은이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어른 공경은 오래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 들었다고 해서 젊은이들에게 대접받을 이유는 없다. 30년 넘는 동안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던 나에게 그들에 대한 미안함은 항상 마음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 세대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우리보다 훨씬 심한 경쟁 사회로 내몰리며 살아내고 있다. 자연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고, 취업과 결혼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성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88만원 세대에서 삼포, 오포, 칠포 그리고는 N포세대로 특징되는 젊은이들에게 무슨 대접 받는 일을 기대할 것인가.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나이 값의 무게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내가 어르신 대접 받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인간대접 받는 것까지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듯, 보호가 필요한 노인 어르신들이 참으로 많다. 이들은 보호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간 대접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노인들이 젊은이를 상대로 끈대질 해서는 안 되듯 젊은이들도 모든 점에서 버벅대는 어르신들을 무시하지 않기를 최소한으로 요구할 수 있다. 난 70이 될 때까지는 지공선사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으며, 경로석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 경로우대 할인도 받지 않고 있다. 이것이 내가 현실적으로 대접 받기를 포기하는 나 나름의 소박한 방법들이다.

둘째, 난 끈대가 되지 않기 위해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선부른 충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나이든 선생님들은 요즘 애들 가르치기 참 어렵다는 말을 한다. 예전에 비해 학생들이 너무도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학생 탓하지만 사실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선생님들 탓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 때(라테)는 말이야', '왕년에', '옛날에는' 등의 말을 나는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실제로 젊은이들에게 거의 사용해 본적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나의 경험, 경력 그리고 지식은 젊은이들에게 별로 소용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긴 아날로그 시대를 살면서 배운 지식들은 창창한 세월 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런데도 무슨 충고를 하겠다는 것인가? 내 자식들에게도 하지 않는 충고를 남의 자식들에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끈대 짓이다. 그러나 혹시 젊은이들이 내게 작은 삶의 지혜라도 요청하면 한 마디 정도 해 줄 용의는 물론 있다.

끈대가 되지 않기 위한 나의 세 번째 다짐은 젊은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 행위에서 그들 편에 서기로 한 것이다. 내 나이 또래에는 보수주의적 성향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내 주위에 광화문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나는 그들이 쏟아 내는 정치적 발언들 밑바탕에는 다른 목소리가 숨어 있는 것처럼 들린다. '산업화, 근대화의 주역이었던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에 있으니 (젊은 것들아) 우리 목소리도 들어다오'라며 외치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 보수주의 쪽에 한 표를 던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젊은 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투표 행위에서 나는 내 입장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입장에 서서 판단하기로 결심했다.

내 나이 50대까지는 미래를 보는 시선이 길어야 10년 앞까지가 전부였었다. 내 자식들이 대학교 취업하고 결혼하는 시간까지가 부모로서 내 의무라고 여기고 살았고, 그래서 10년 이상의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손자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60대가 되고나니 물리적인 나의 삶의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미래를 보는 시선의 길이는 점점 늘어가는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이는 마치 한낮 태양이 만드는 그림자의 길이보다 석양의 그림자가 긴 것과도 같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나의 시선의 길이는 점점 길어지고 있으며, 손자 세대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걱정은 곧 정치적 투표 행위의 신중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기로 다짐했다.

이 정도의 세 가지 다짐을 잘 실행에 옮긴다면 적어도 끈대소리는 안 들을 것 같다. ❹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임원 연간 회비 입금현황 (2020년 1월~11월, 납부일 순)

정내하 김우진 홍성중 부윤경 홍이표 박대봉 임태성 홍성덕 김찬 김용환 유정배 우원식 김진형 이경철 황원섭 정광균 홍재구 김태원 김경호 강호형 홍순계 김수송 이종찬 안태호 오세중 한승관 김현정 문현군 이미자 박석봉 노정래 한왕기 손양호 제종길 정보현 김준목

CMS회원 회비 입금현황 (2020년 11월 30일 현재 189명)

(사)한국마트협회 JIN CHUNXING 강도연 강미혜 강태영 강태희 고형오 구자룡 권수정 권석중 권영희 권재석 김거성 김경숙 김경애 김관표 김권석 김대영 김대한 김도식 김미선 김미자 김사엽 김상우 김선자 김성미 김성순 김성애 김성현 김수오 김신애 김양미 김영숙 김영진 김옥찬 김용경 김우진 김재구 김재영 김재현 김재형 김정식 김준수 김준영 김창환 김철순 김태원 김학필 김한백 나영현 나옥수 나홍섭 노용기 마화용 맹진규 문삼영 문재남 민가식 민병훈 박국진 박규만 박기호 박도산 박선원 박안선 박점조 박조수 박준영 박지호 박태근 박현철 배규식 배영실 백장현 서경민 서민 서양원 석진경 석혜경 설장선 성은하 손여록 손현상 송다영 송정화 신선준 신승관 신원철 신재면 심상걸 안상환 안선중 안영수 안영현 안태일 양미숙 엄기인 엄범용 여상연 여은석 오연근 우문식 유봉석 윤여각 윤진희 이광수 이대호 이명수 이병국 이병룡 이상진 이성미 이수연 이순자 이승룡 이영란 이영숙 이영희 이우엽 이원규 이원정 이원형 이유창 이윤기 이은영 이은우 이정원 이주열 이주용 이준호 이지련 이지선 이진 이태준 이태훈 이해경 이해란 이현주 이호대 임현문 장승희 전광출 전성배 전준 전중선 전형범 전홍기 정동준 정두영 정병훈 정상섭 정성관 정윤미 정은숙 정인택 정종우 정준수 정지국 정현석 제성수 제옥평 조국환 조봉현 조영옥 조영익 조영제 조진오 조현재 지애숙 지영순 지에는 지현주 천상영 체인묵 최성우 최재호 최향수 하기호 한동진 한영우 한재원 허양순 홍영만 홍전표 홍정희 홍희령 황덕순 황선익 황중섭

임원명단

이사장	우원식(국회의원)	
명예이사장	이종찬(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건립위원회 위원장)	
부이사장	황원섭(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감사	박형상(변호사 / 전 서울중구청장)	
상임이사	홍순계(IBK연금보험 상근감사위원)	
사무총장	한동건((주)태백자원개발 대표이사)	
이사	강호형((주)KC COTTRELL 감사)	김경호(대구광역시 자문대사/전 주러시아 대사관 정무공사)
	김수송(주)이음컴넷서비스 대표	김양진(BC카드 상임감사)
	김우진(K잡스 대표이사)	김용환(전 한남대 부총장)
	김준목((사)혁신경제 이사장)	김진형(사)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 찬(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	김태원(NH 증권 부사장) 김현권(전 국회의원)
	김현권(전 국회의원)	김형상(조이 세무회계 대표)
	김현정(사무금융노조 위원장)	남인순(국회의원)
	노정래(주)건화 감리CM본부 사장	류병균(평화전략연구소장)
	문현군(한국노총부위원장)	박대봉(한국비즈니스컨설팅사 주식회사)
	박드미트리(P&TEC 농업조경법인 대표)	박석봉(육사 교수)
	박완주(국회의원)	부윤경(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석순용(특허법인 신세기 대표)	손광춘(건축업)
	손양호(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박물관 후원회장)	안태호(한국전기감리협의회 부회장)
	오세중(대한변리사회 회장)	위성곤(국회의원)
	유 용(서울시의원)	유정배(대한석탄공사 사장)
	이경철(노원구의회 의장)	이명식(세마윌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이미자 (전 종로구의원)	이승중(네무스텍 대표)
	이재호 (한국리싸이클링 대표)	임태성((재)서산복지재단 이사장)
	정광균(주)미르나인 대표	정내하((주)미네랄하우스대표)
	정보현(노원 소상공인협의회 감사)	정수진(하나카드 자문위원)
	제종길((사)도시·인·숲 이사장 / 17대 국회의원)	조태수(주)다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최 윤(E3플랜비 대표이사)	최익훈(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최재웅(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	한승관(대한변리사회 회원이사)
	한왕기(제40대 평창군수)	홍성덕(전 주독일한국대사관 공사)
	홍성중(남양홍씨 남양군파대종중회 회장/토금산업 회장)	홍의락(전 국회의원)
	홍이표(하이라빙 대표)	홍재구(당정사적보존회 회장)
	홍중표(강동수산 대표이사)	
신임이사	서경석(현대건설 부사장)	

후원안내 : 신한은행 100-027-188760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홈페이지 : www.hongbumdo.org
회원가입 : 김현식 사무국장(02-784-3601)



회원가입